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崔 海 珠

서양 여성복 Bodice의 입체화
방법에 대한 역사적 고찰

A Historical Study on the Three-Dimensional
Construction Methods of Bodice for
Western Women's Clothes

2001年 6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衣 裳 學 科

패션 디자인 專攻

金 準 錫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崔 海 珠

서양 여성복 Bodice의 입체화
방법에 대한 역사적 고찰

A Historical Study on the Three-Dimensional
Construction Methods of Bodice for
Western Women's Clothes

위 論文을 家庭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 6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衣 裳 學 科

패션 디자인 專攻

金 準 錫

金準錫의 家庭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1年 6月

審 查 委 員 長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감사의 글

논문을 끝내고 되돌아본 저에게 대학원 생활은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최선을 다하여 부족함 많은 저를 본 논문이 이루어지기까지 학문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자상하신 지도교수님 최해주 교수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논문이 되도록 논문의 보완과 심사에 도움을 주신 양미정 교수님, 주성희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배려와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김정인 교수님, 김용주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학원을 같이 다닌 동기생 안은경님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또한 정영선선배님과 동기생 이귀옥님 그리고 후배님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배려해주신 강서기능대학 정현석 학장님, 최현 교학처장님, 이수연 교무과장님, 전삼석 학생과장님 또한 패션디자인과 교수님들과 모든 교수님, 교직원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자료 정리를 보조해준 박선주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끝으로 언제나 격려를 아끼지 않고 지원해주신 시부모님과 친정가족, 또한 항상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며, 묵묵히 지켜봐 준 남편과 우리 아들 진영이와 지금의 이 기쁨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2001년 6월

金 準 錫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	1
2. 연구 방법과 범위	3
II. 바디스 패턴의 시대별 특성	5
1. 중 세	5
2. 근 세	16
3. 근 대	27
III 결 론	43
참고 문헌	45
ABSTRACT	48

표 목 차

[표 1]	로마네스크시대 바디스 패턴의 특징	9
[표 2]	고딕 시대시대 바디스 패턴의 특징	15
[표 3]	르네상스시대 바디스 패턴의 특징	19
[표 4]	바로크시대 바디스 패턴의 특징	22
[표 5]	로코코시대 바디스 패턴의 특징	26
[표 6]	엠펙이어스타일시대 바디스 패턴의 특징	30
[표 7]	로맨틱스타일시대 바디스 패턴의 특징	33
[표 8]	크리놀린스타일시대 바디스 패턴의 특징	37
[표 9]	버슬과 S자 스타일시대 바디스 패턴의 특징	41

그 립 목 차

<그림 1>	Tunic, 1066년	7
<그림 2>	Overtunic과 Undertunic의 pattern, 1066년	7
<그림 3>	Tunic의 pattern(a 앞, b 뒤), 11C	8
<그림 4>	Robe, 1100년	8
<그림 5>	Robe의 pattern, 1100년	8
<그림 6>	Bliaud와 Corsage, 1150년	8
<그림 7>	Bliaud와 Corsage의 pattern, 1150년	8
<그림 8>	Robe와 Gown, 1260년	12
<그림 9>	Cotehardie, 1340년	12
<그림 10>	Robe와 Gown의 pattern, 1260년	12
<그림 11>	Houppelande, 1440년	13
<그림 12>	Houppelande의 pattern, 1440년	13
<그림 13>	Robe(Gown), 1470년	13
<그림 14>	Gown(Robe)의 bodice, 1470년	13
<그림 15>	Gown(Robe)의 pattern, 1485년	14
<그림 16>	Gown, 1500년	14
<그림 17>	Gown의 pattern, 1500년	14
<그림 18>	Gown의 bodice, 1550년	18
<그림 19>	Gown의 bodice, 1575년	18
<그림 20>	Gown, 1585년	18
<그림 21>	Gown의 bodice, 1585년	18
<그림 22>	Gown의 bodice, 1605년	21

<그림 23>	Gown의 bodice, 1610년	21
<그림 24>	Gown의 Bodice, 1635년	21
<그림 25>	Gown, 1650년	22
<그림 26>	Gown의 Bodice, 1675년	22
<그림 27>	Gown의 bodice, 1705년	24
<그림 28>	Watteau Gown, 1720년	25
<그림 29>	Watteau Gown의 pattern, 1720년	25
<그림 30>	Robe, 1755년	25
<그림 31>	Robe의 pattern, 1770년	25
<그림 32>	Robe의 Bodice Pattern, 1785년	26
<그림 33>	Spencer, 1800년	28
<그림 34>	Robe의 Bodice, 1795년	34
<그림 35>	Gown의 Bodice, 1805년	29
<그림 36>	Spencer의 Bodice, 1815년	29
<그림 37>	Spencer의 Bodice, 1815년	29
<그림 38>	Gown의 Bodice, 1825년	31
<그림 39>	Gown, 1836년	32
<그림 40>	Gown의 Bodice, 1830년	32
<그림 41>	Dress의 Bodice Pattern (앞a, 뒤b) 1840년	32
<그림 42>	Pelerine의 Bodice Pattern, 1830년	33
<그림 43>	Pardessus Coat, 1860년	35
<그림 44>	Pardessus Coat 의 Bodice Pattern, 1853년	35
<그림 45>	Gown의 Bodice, 1855년	36
<그림 46>	Pardessus Coat, 1863년	36

<그림 47>	Pardessus Coat 의 Bodice, 1863년	36
<그림 48>	Bustle의 Bodice, 1870년	39
<그림 49>	Bustle, 1886년	39
<그림 50>	Bustle의 Bodice Pattern, 1886년	39
<그림 51>	Coat, 1892년	40
<그림 52>	Coat의 Bodice Pattern, 1892년	40
<그림 53>	Coat의 Bodice Pattern, 1896년	40
<그림 54>	Foundation의 Bodice Pattern, 1900년	4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복식은 자연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¹⁾ 그 형태가 결정되고 변화한다. 복식의 형태는 지역, 시대, 민족, 사회 계층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각 시대와 사회, 개인의 조형의지를 반영한다.

복식은 인간에게 가장 밀접한 생활조형으로서 다른 조형물과 달리 인체에 착용되었을 때 그 의의가 나타나므로²⁾ 의복은 직접적인 인간의 표현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복식의 본질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과 관련하여 다루어져야 한다.³⁾

복식의 형태는 역사적으로 동양문화와 서양문화에 있어서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내 왔다.⁴⁾⁵⁾⁶⁾ 즉, 동양복식은 인체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평면적인 형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반면, 서양복식은 인체 윤곽이 드러나도록 인체에 밀착되거나 인체 형태를 과장시킨 입체적인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여 왔다.

동·서양 복식의 이러한 형태적인 차이는 두 문화권이 추구한 정신세계가 상이하았음을 나타내 준다.

1) 유송옥, 「복식의장학」, 수학사, 1982, p.15.

2) 최해주, “고대 이집트 복식에 표현된 미의식의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20권1호, 1982, p.11.

3)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2, p.81.

4) 유희경·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98.

5) Robert Harrold and Phyllida Legg, 「Folk Costumes」, Sterling Publishing Co., Inc., 1999.

6) J. Anderson Black, Madge Garland and Frances Kennett, 「A History of Fashion」, Orbis Publishing Limited, 1980.

현대에 이르러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의 문화가 빠르게 교류하게 되고 생활에서 활동성을 추구함에 따라 각 나라, 민족의 고유한 복식은 민속복식으로 남게 되었으며, 서양복식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상 생활의 다양한 용도로 채택되어 세계인의 복식으로 정착되었다.

서양복식은 미케네복식에서 인체에 밀착된 형태가 등장하였으나⁷⁾ 다음 시대로 이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입체화가 시작된 것은 중세부터라고 할 수 있다.

중세로부터 입체화가 시작된 서양복식은 현대만큼 다양하게 표현된 시대는 없으나, 전연 새로운 양식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지난 날에 변화해 온 복식 형태를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났다.⁸⁾

시대적으로 사회전반에서 기능성과 간편성이 요구됨에 따라 서양복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인의 일상복으로 착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 복식을 잘 예측하고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서양복식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인체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는지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체 부위 중 상체의 가슴과 허리부위는 굴곡이 심한 부위이므로 의복이 인체의 형태에 입체적으로 적합하기 위해 특히 많은 기술이 요구되는 부위이다.

바디스(bodice)는 허리선 위의 구간부(軀幹部)에 해당하는 의복의 부분을 일컬으며, 역사적으로 의복을 입체화하기 위해 바디스 패턴 전개에 다양한 구성 방법이 적용되어 왔다.

서양의복 구성방법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선행연구의 경우⁹⁾¹⁰⁾¹¹⁾¹²⁾ 남성복,

7) Franç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New York, 1987.

8) 조규화, op. cit. p.275.

9) 손영순, “Renaissance 복식 구성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여성복, 바디스, 슬리브, 칼라 등을 대상으로 하여 패턴 자체의 분석보다는 완성된 의복형태를 주로 고찰하였으며, 바디스 패턴 전개 방법의 다양한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양 여성복 바디스 패턴의 다양한 전개방법을 역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서양 여성복의 입체화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서양 여성복 바디스의 입체화 방법을 분석하여 여성복 디자인 개발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양 여성복 바디스 패턴의 시대별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여성복 바디스 패턴의 입체화 과정의 변화 양상을 파악한다.

셋째, 바디스 형태에 따른 입체화 방법의 종류별 특성을 고찰하여 여성복 디자인 개발의 근거를 제공한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인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를 위해서는 선행연구와 관련 전문서적을 참고로 하였고, 실증적 연구를 위해서는 서양 복식사에 제시된 여성복 패턴을 근거로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여성복 바디스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참고한 문헌은 Margot Hamilton Hill and Peter A. Bucknell,¹³⁾ Carl Köhler,¹⁴⁾ Blanche Payne¹⁵⁾ 등 이다(이하

1977.

10) 박명희, “중세 서양복식에 나타난 입체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78.

11) 박선애, “Sleeves의 복식사적 고찰 및 구성방법”, 숙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12) 송설옥, “복식에 나타난 Collar의 구성적 특성 -근세·근대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13) Margot Hamilton Hill and Peter A. Bucknell, 「The Evolution of

Hill, Köhler, Payne으로 표기함).

바디스 패턴을 고찰한 시대를 설정한 기준은 서양복의 입체화가 시작된 시기부터 과거 복식의 변형이 시작된 현대 이전까지로 하였다. 따라서 바디스 패턴을 고찰한 시대범위는 중세부터 근대까지로 하였으며, 패턴 자료의 분석이 가능한 시기를 고려하여 11세기부터 19세기까지를 고찰 시대 범위로 하였다.

-
- Fashion : Pattern Cut from 1066 to 1930」, B. T. Batsford Ltd., London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1967.
- 14) Carl Köhler, 「A History of Costume」, Dover Publications Inc., New York, 1963.
- 15)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New York : Happer & Row, 1965.

II. 바디스 패턴의 시대별 특성

서양 여성복 바디스 패턴의 시대별 특성의 변화를 중세부터 근대까지, 11세기부터 19세기까지 살펴보았다. 시대 구분은 복식의 실루엣, 형태 등이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시대별, 복식의 특징은 Boucher, Payne, Köhler, Hill, 정홍숙,¹⁶⁾ 신상옥,¹⁷⁾ 이정옥¹⁸⁾ 등을 참고로 하였다.

1. 중세

(1) 로마네스크시대(11-12세기)

1) 복식의 특징

로마네스크 시대의 복식은 게르만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십자군 원정으로 그리스·로마의 전통을 계승한 비잔틴 복식문화와 고도의 동방문물이 융합되어 독특한 스타일을 형성하였으며, 특히 기독교의 정신적인 표현이 강조되었다. 동방의 독점 직물이었던 견(silk)과 면(cotton)의 수입으로 견과 리넨(linen), 견과 모(wool), 리넨과 모 등의 교직물이 생산되면서 달마티카와 튜닉은 블리오(bliaud, bliaut, outertunic 일종)로 화려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로마네스크 복식은 전체적으로 헐렁한 형에서 몸에 맞는 형으로 발전해 가

16)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2000.

17) 신상옥, 「서양 복식사」, 수학사, 1998.

18) 이정옥 외 2인, 「서양복식사」, 개정판, 형설출판사, 1999.

는 과도기의 성격을 갖고 있다. 즉, 블리오, 코르사아주(corsage, corset)등에서 이러한 변화과정을 뒷받침하는 재단의 발달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이때부터 남녀 복식이 분리되기 시작하고 여성복식은 남성복식보다 더욱 복잡하고 화려해졌다.

이 시대의 여성들은 남성과 같이 쉼즈(chainse, undertunic), 튜닉(tunic, robe), 블리오, 외투(mantle)를 기본 복장으로 하고 인체 곡선을 나타내기 위한 코르사아주를 착용하였다.

쉼즈의 형태는 남성의 것과 다를 바 없었으나 여성의 블리오는 좀 더 장식적이며 만드는 재료도 다양하였다.

로마네스크시대의 복식의 형태는 <그림 1, 4, 6>과 같다.

2) 패턴의 특징

로마네스크시대의 복식은 신체의 노출을 싫어하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몸을 감싸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인체의 윤곽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 체형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11~12세기의 복식의 특징은 훌륭한 의복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로마네스크시대의 복식의 바디스 패턴의 형태는 <그림 2, 3, 5, 7>과 같으며, 패턴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시대 복식의 패턴의 특징은 튜닉, 로브, 블리오 등이 일부 블리오(그림 7)를 제외한 거의 모두가 허리선이 절개되지 않고 상하의가 하나로 이어진 형태였다. 바디스의 패턴을 살펴보면 옆선은 수직선, 텐트라인, 인체 밀착 사선, 곡선 등으로 되어 있으며, 앞 뒤 중심선은 <그림 3>이 뒷중심선에 트임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대체로 곧선으로 되어 있으며 앞 뒤 목둘레선에서 중

심선 쪽으로 짧은 트임이 있었다.

의복을 인체 형태에 맞게 입체화하는 방법으로 패턴에서 다트(dart)와 같은 정확한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옆선은 곡선, 인체 밀착 사선으로 처리하여 인체 윤곽선과 유사하게 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뒷중심선과 옆선을 끈으로 엮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옆선을 끈으로 엮는 경우<그림 4, 5> 패턴을 잘라냄으로써 다트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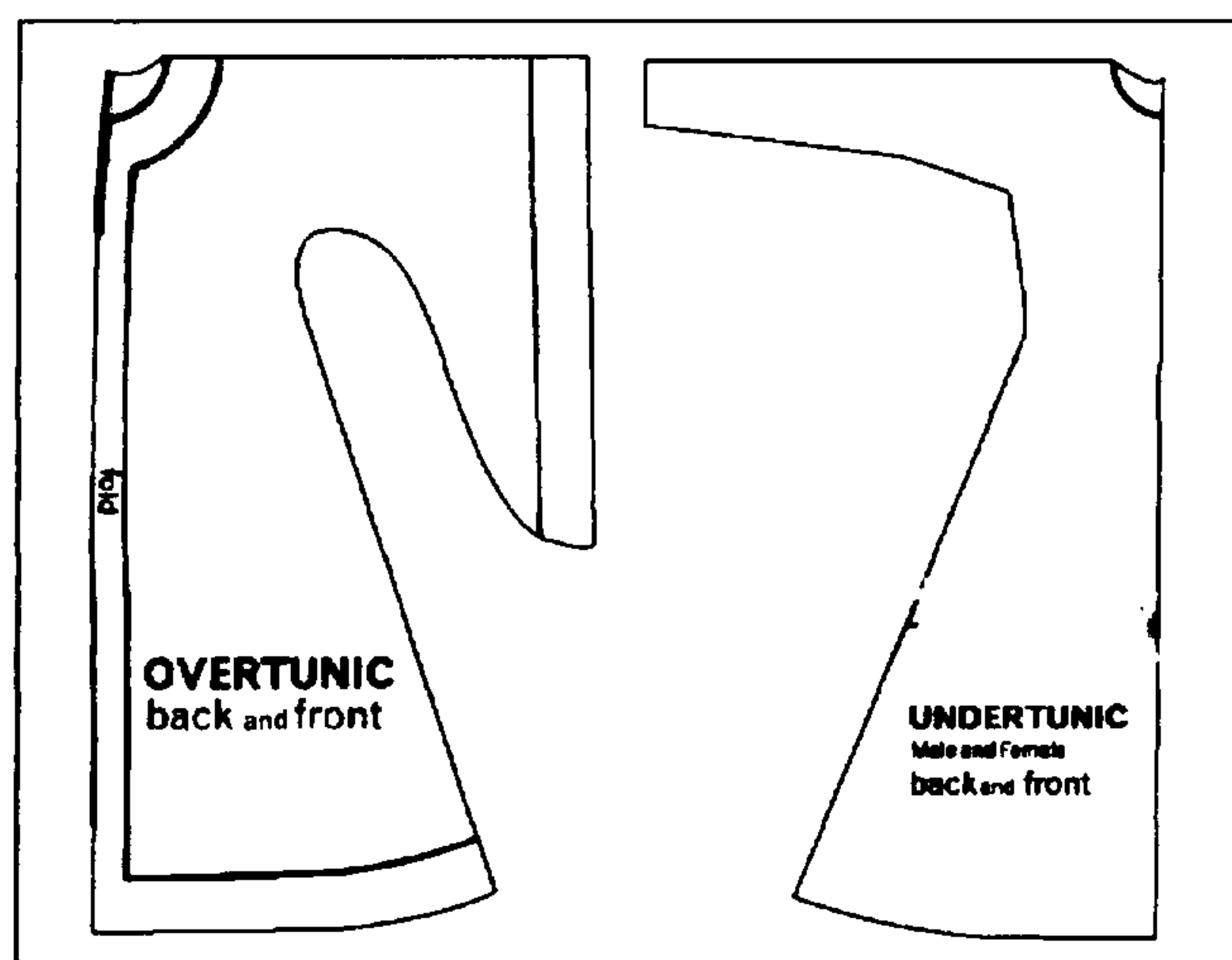
요약하면, 로마네스크시대 복식의 입체화의 특징은 대체로 평면적인 패턴을 사용하여 벨트나 거들로 묶기, 끈으로 엮기, 꼬르사아주로 허리부위의 윤곽선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체를 입체화하였다.

인체의 윤곽선을 드러내기 위한 그 밖의 방법으로는 벨트나 거들로 허리를 매는 방법과 꼬르사아주로 허리선을 나타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1]에 의하면, 초기에는 허리선을 거들로 매는 방법 이외에는 옆선을 수직선과 턴트라인을 사용하는 등 패턴상에서는 입체화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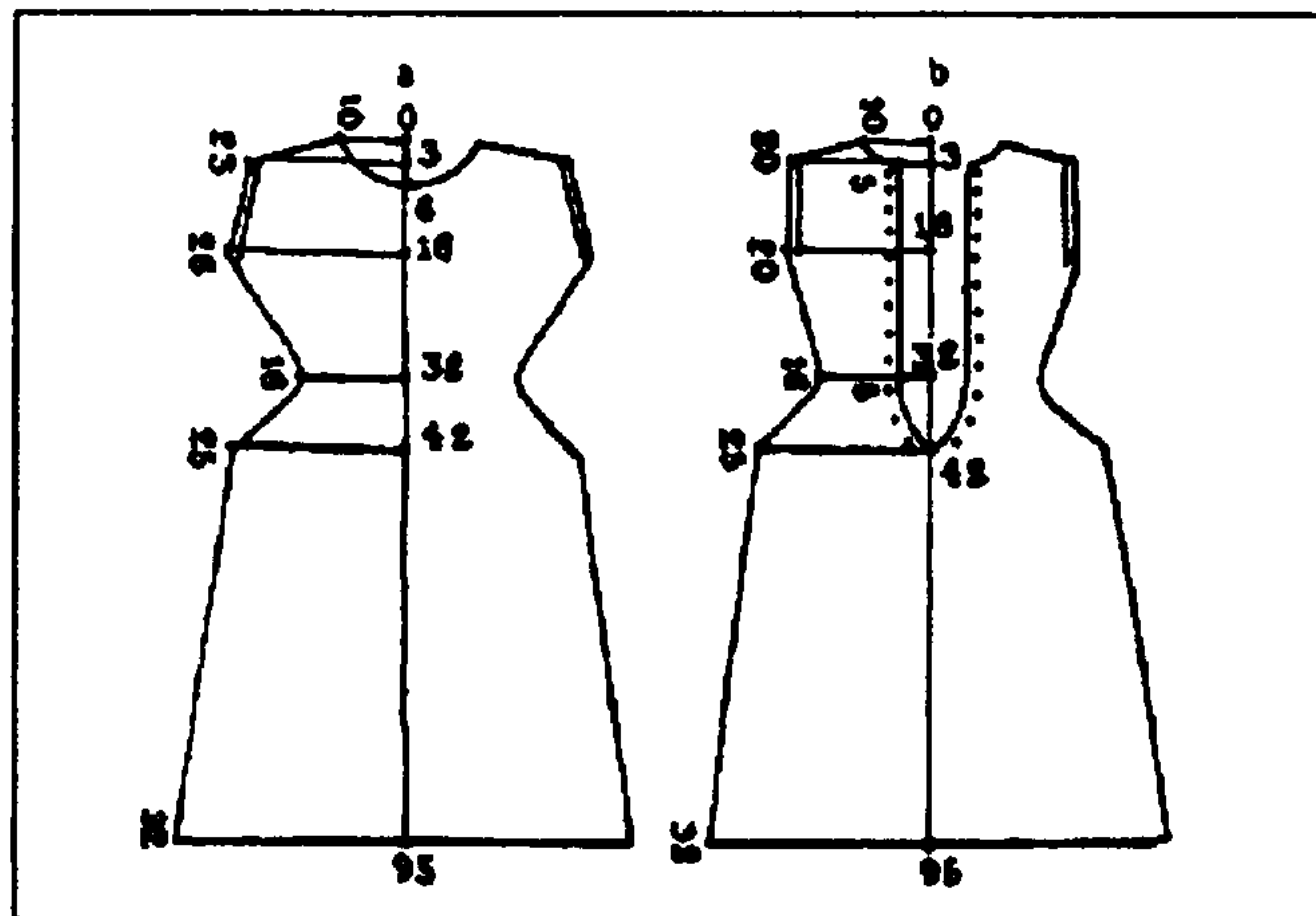


<그림 1> Tunic, 1066년



<그림 2> Overtunic과 Undertunic의 pattern, 106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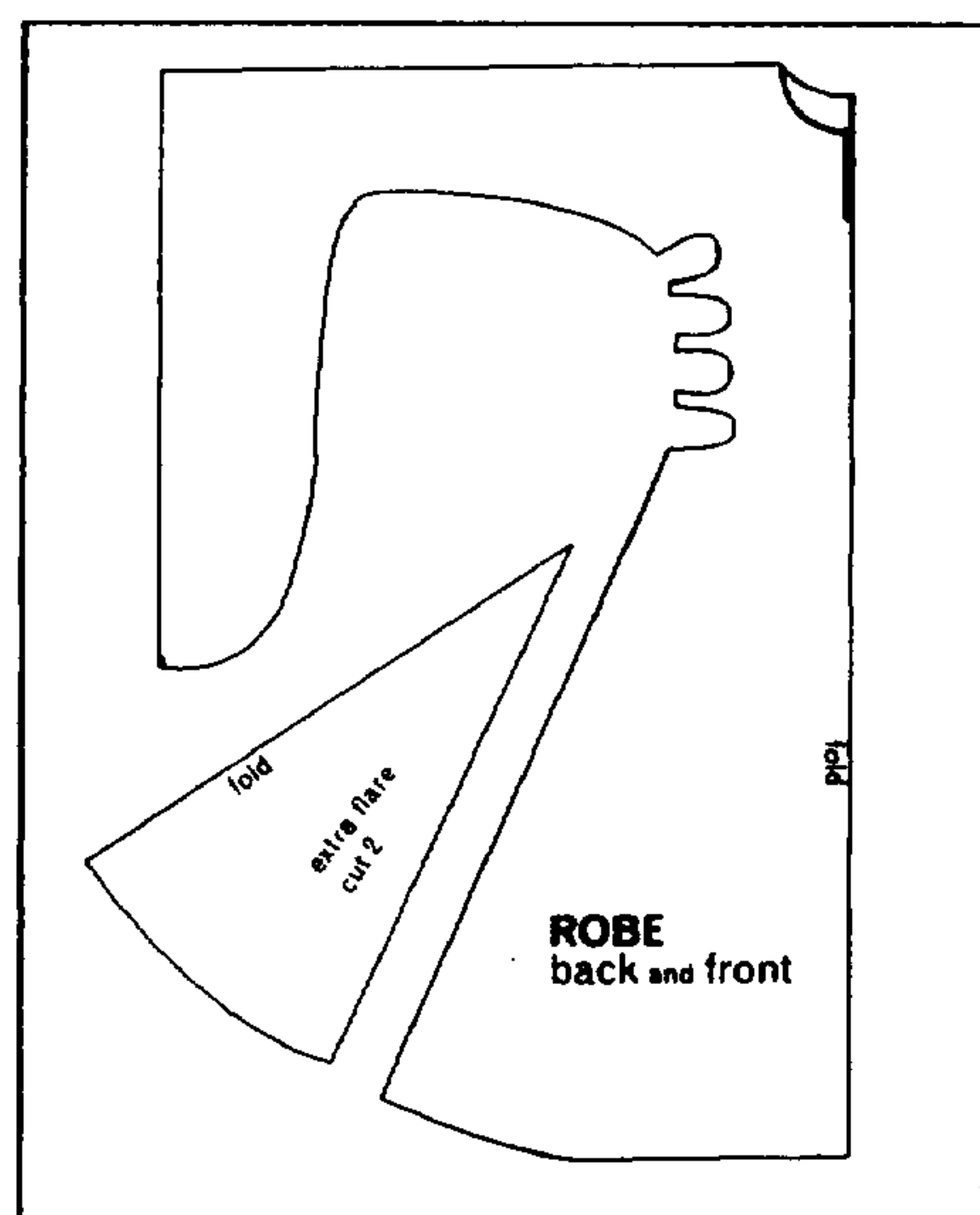
으며, 점차 옆선처리와 끈으로 묶는 방법, 꼬르사아주 착용 등 다양한 방법이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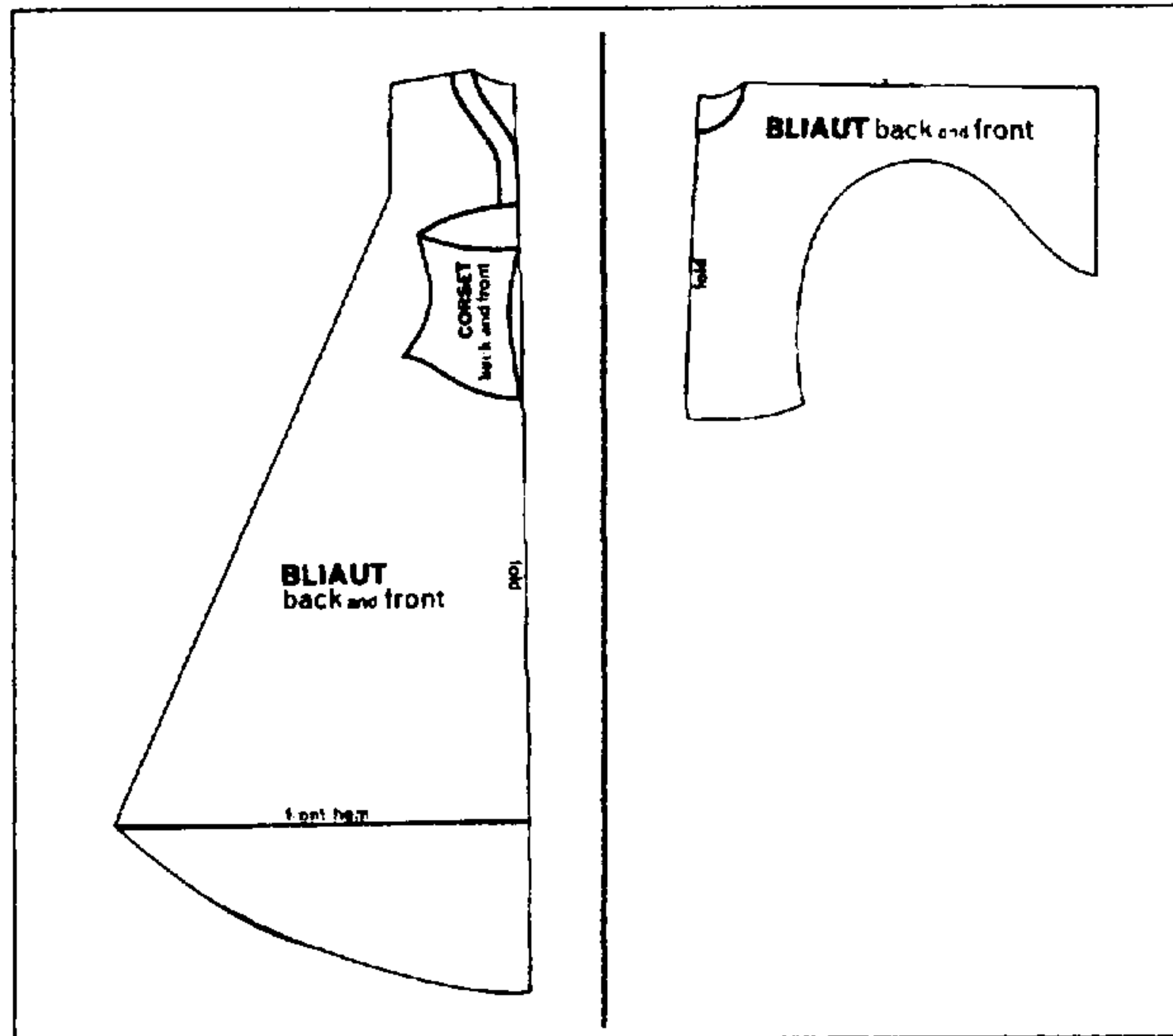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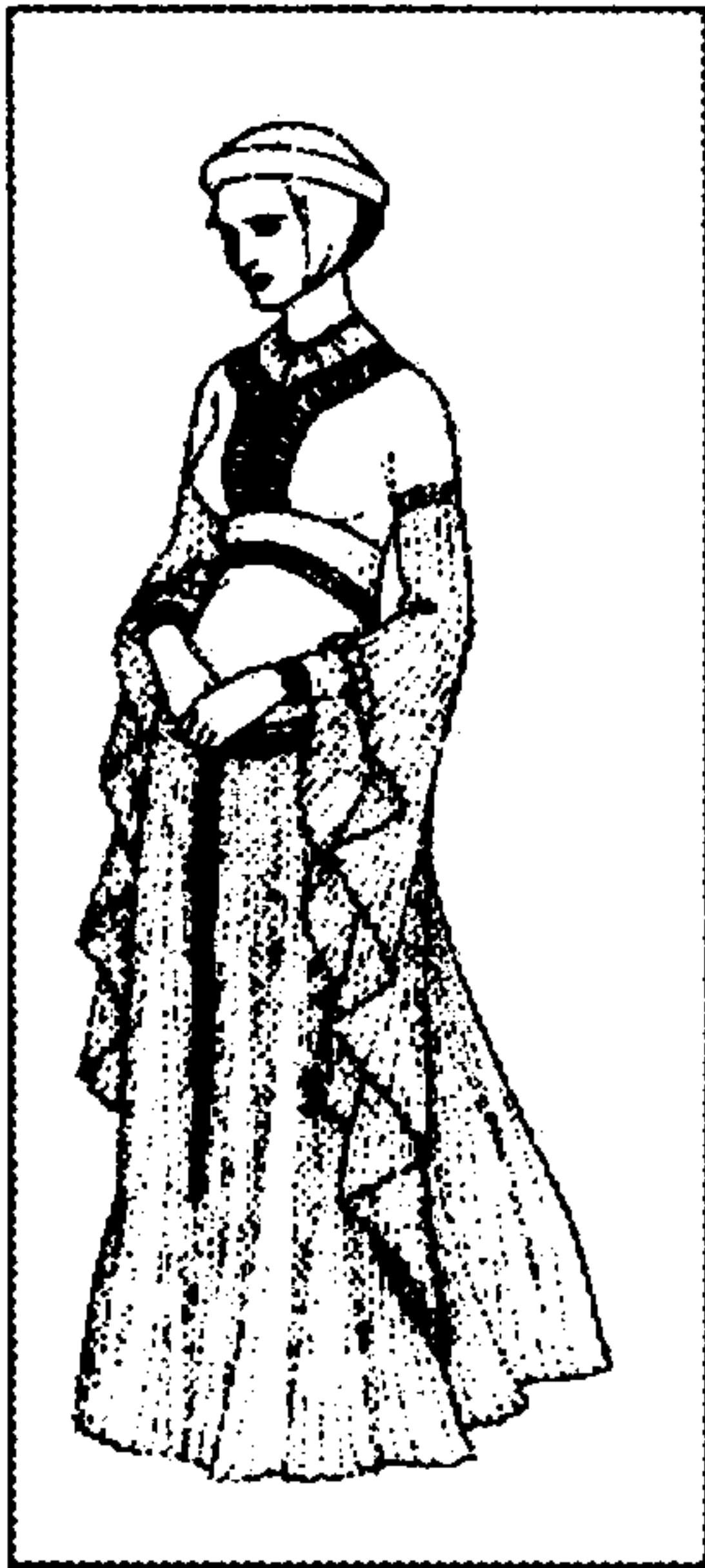
<그림 3> Tunic의 pattern(a 앞, b 뒤), 11C



<그림 4> Robe, 1100년



<그림 5> Robe의 pattern, 1100년



<그림 6> Bliaud와 Corsage, 1150년

<그림 7> Bliaud와 Corsage의 pattern, 1150년

[표 1] 로마네스크 시대 바디스 패턴의 특징 *

시대 (세기)	연대	고찰의상	실루엣	허리선	옆선	중심선	입체화 방법	참고 문헌
중세 로마 네스크 (11-12C)	1066년	Undertunic	fit	상하연결	수직	앞 뒤 골선	거들	Hill
		Overtunic			텐트라인			
	11세기	Tunic			밀착 사선	뒤트임 앞골선	옆선, 뒷중심선 lacing	Köhler
	1100년	Robe			수직	앞 뒤 골선	옆선 lacing	Hill
	1150년	Underrobe		상하절개 또는연결	곡선과 수직		corset	Hill
		Bliaud		상하 연결	밀착 사선			
		Corset			곡선		옆선, belt	Hill
	1190년	Tunic (Robe)						

(2) 고딕시대(13세기~15세기)

1) 복식의 특징

12세기에 신체의 윤곽선을 잘 나타내 주던 의상은 13세기에 잠시 무겁고 험령하게 인체를 감추는 듯 하더니 다시 부드러운 옷감과 거들(girdle)로 인체의 곡선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블리오와 같이 소매가 땅에 끌리는 등의 불합리한 의상형태는 사라지고 꼬뜨(cotte)와 같은 편리한 원피스 드레스형태가 나타났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속옷인 슈미즈와 블리오의 변형인 꼬뜨나 꼬따르디(cotehardie)를 입고 그 위에 쉬르코(surcot, gown)를 입었다.

14세기에는 남녀의복의 성차가 뚜렷해졌는데 남성의 의상은 짧아지고 여성의 의상은 몸에 꼭 끼게 되어 몸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다. 여성의 의상은 바디스는 꼭 맞고, 스커트는 넓고 길어졌다.

14세기 말 부터는 남녀 모두 우쁘랑드(houppelande)를 착용하였다.

15세기는 중세와 근대의 과도기 내지는 근대의 출발점이 되는 시기로 여성들로 우쁘랑드와 꼬따르디가 변형된 네크라인이 깊게 파인 로브(robe, gown, dress)를 착용하였다. 중세의 신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고딕 양식은 인체미를 변형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체에 곡선을 의복으로 표현함으로써 입체적인 실루엣을 보여 주었다.

고딕시대의 복식의 형태는 <그림 8, 9, 11, 13, 16>과 같다.

2) 패턴의 특징

고딕시대의 복식의 패턴의 형태는 <그림 10, 12, 14, 15, 17>과 같으며, 패턴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고딕시대에도 로마네스크에 이어 인체의 윤곽선을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복을 입체화 시켰다.

13세기에서 15세기 중엽까지의 로브, 가운, 꼬따르디, 우쁘랑드 등의 패턴의 경우 허리선이 절개되지 않고 상하의가 하나의 패턴으로 이어졌으며, 15세기 후반에 등장한 가운(로브)에서 하이웨이스트로 절개된 형태(그림13)가 등장하였다

패턴의 전체적인 형태는 바디스의 허리선까지 인체에 밀착한 사선을 이루다가 스커트 부분이 점차 아래로 넓어지는 형태가 주를 이루며, 우쁘랑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리선을 무시한 텐트라인을 나타내었으며 쉬르꼬의 경우 앞은 엉덩이선까지 인체의 윤곽선보다 더 깊이 파고 뒤편은 텐트라인을 나타내었다.

새로운 입체화 방법으로 15세기 후반에 다트와 프린세스 라인이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보다 직접적이며 효과적인 입체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쉬르꼬의 옆선을 깊게 판 것도 인체의 윤곽선을 드러내주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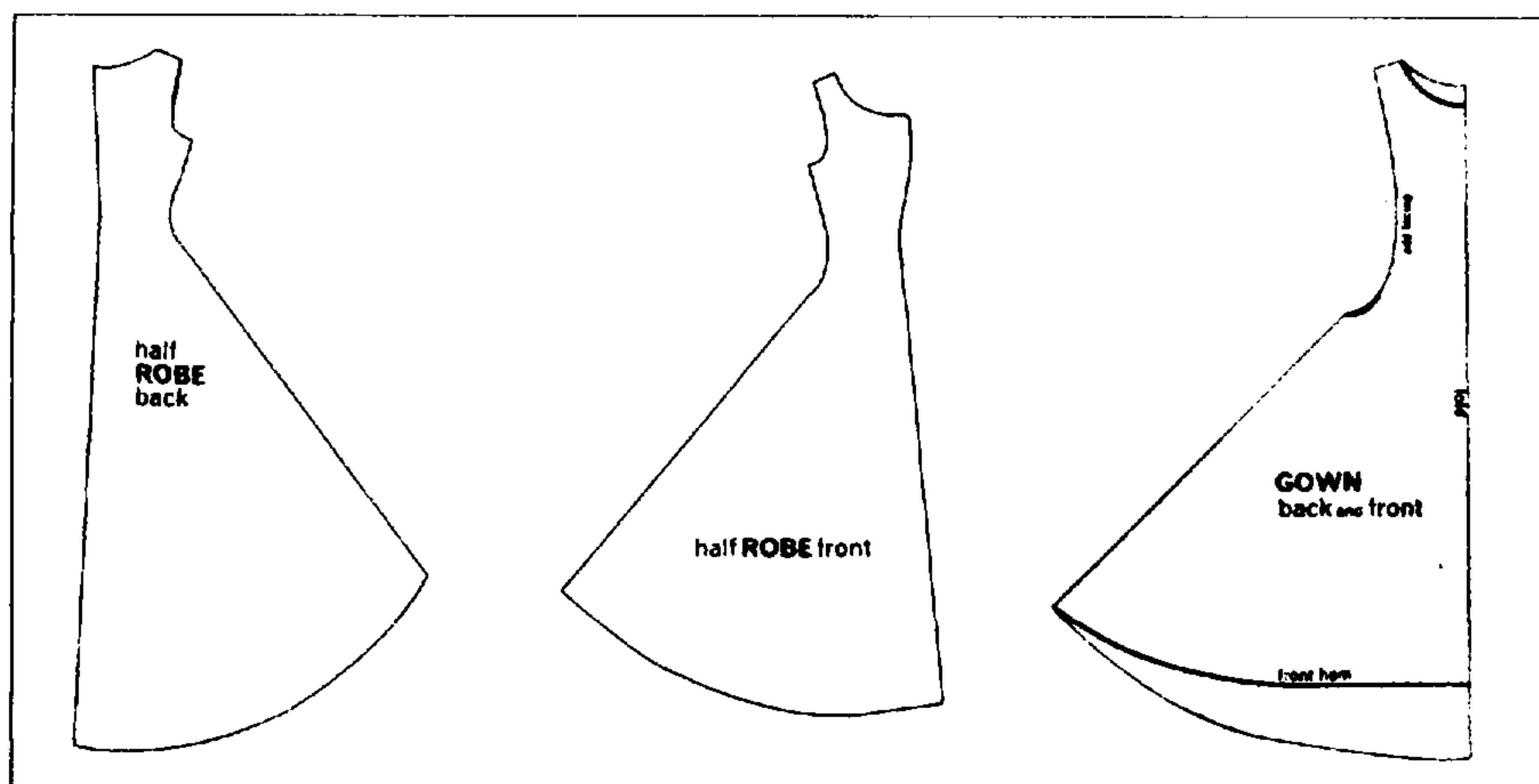
[표 2]에 의하면 패턴이 고딕초기에는 로마네스크 시대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다가 후기로 갈수록 옆선 파임, 다트, 프린세스라인 등 새롭고 구체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림 8> Robe와 Gown, 126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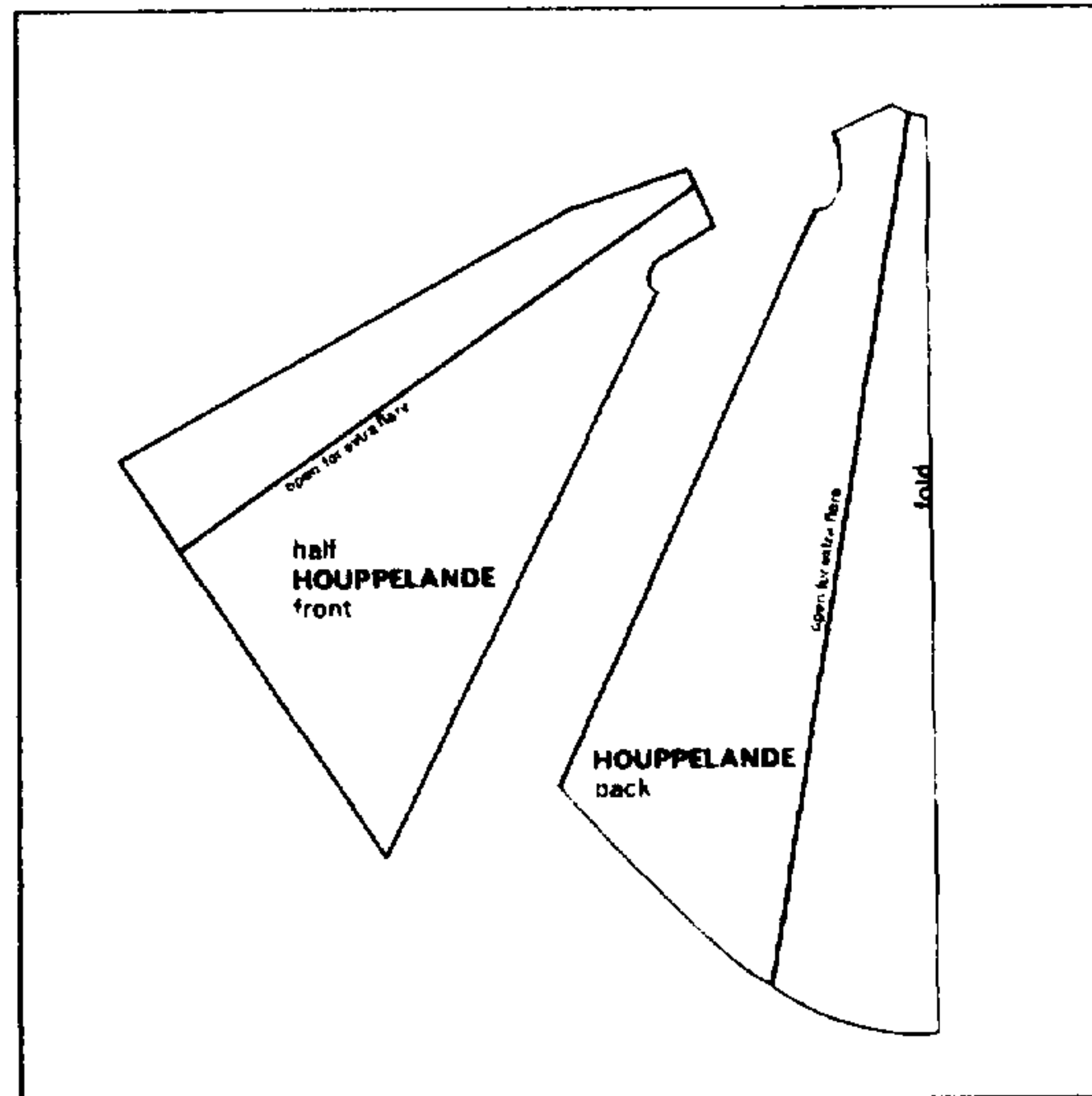
<그림 9> Cotehardie, 1340년



<그림 10> Robe와 Gown의 pattern, 126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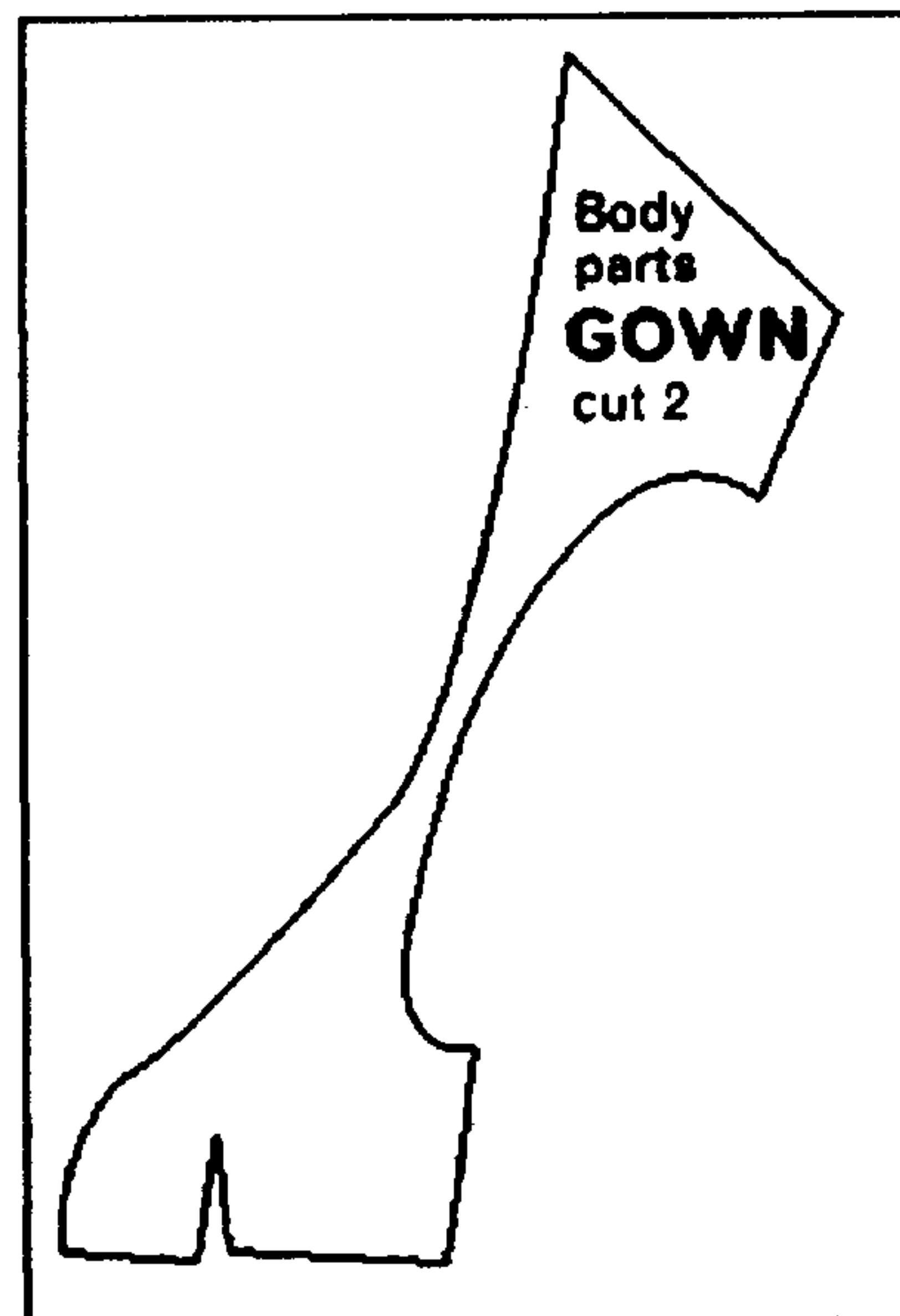
<그림 11> Houppelande, 14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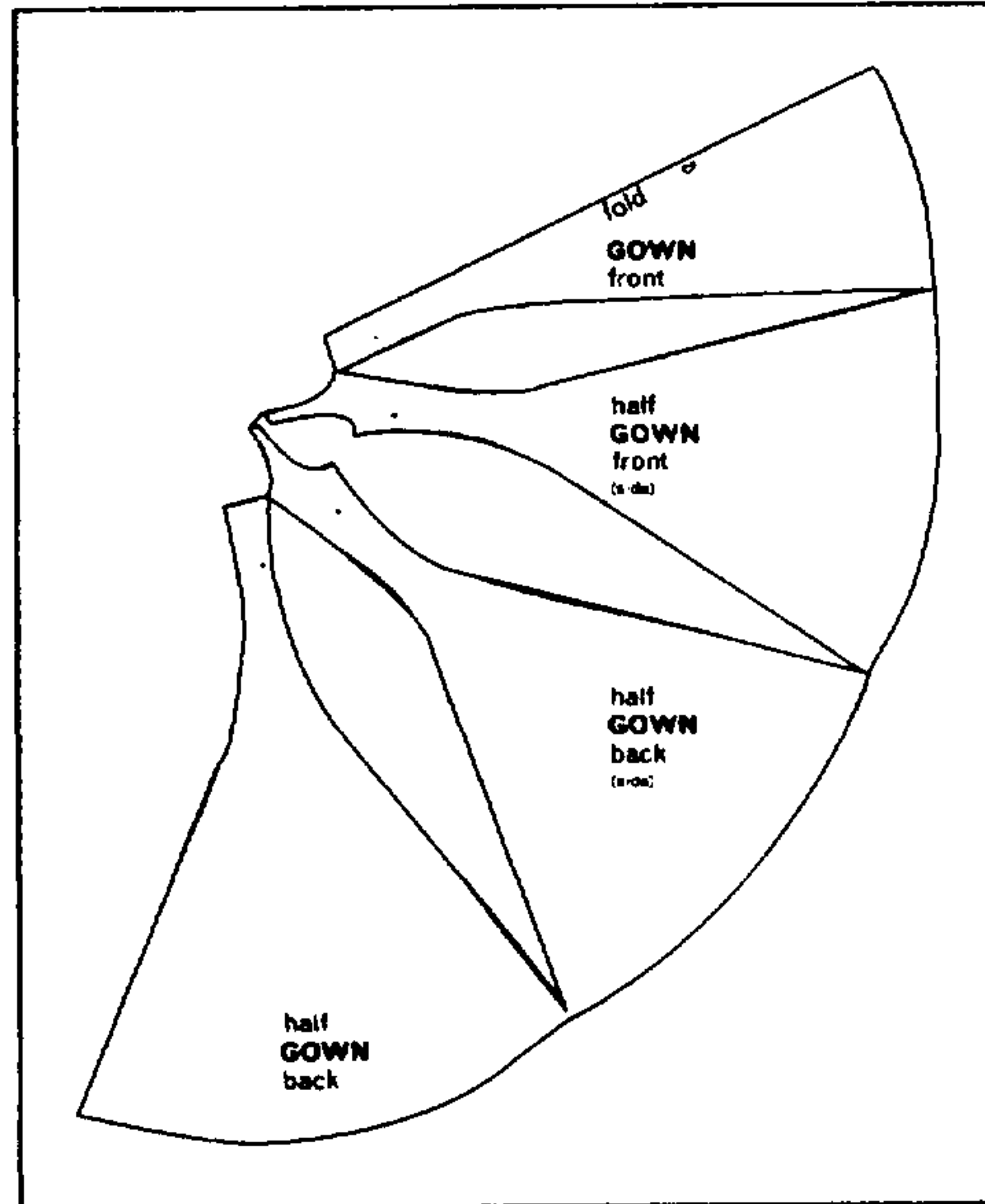
<그림 12> Houppelande의 pattern, 1440년



<그림 13> Robe(Gown), 14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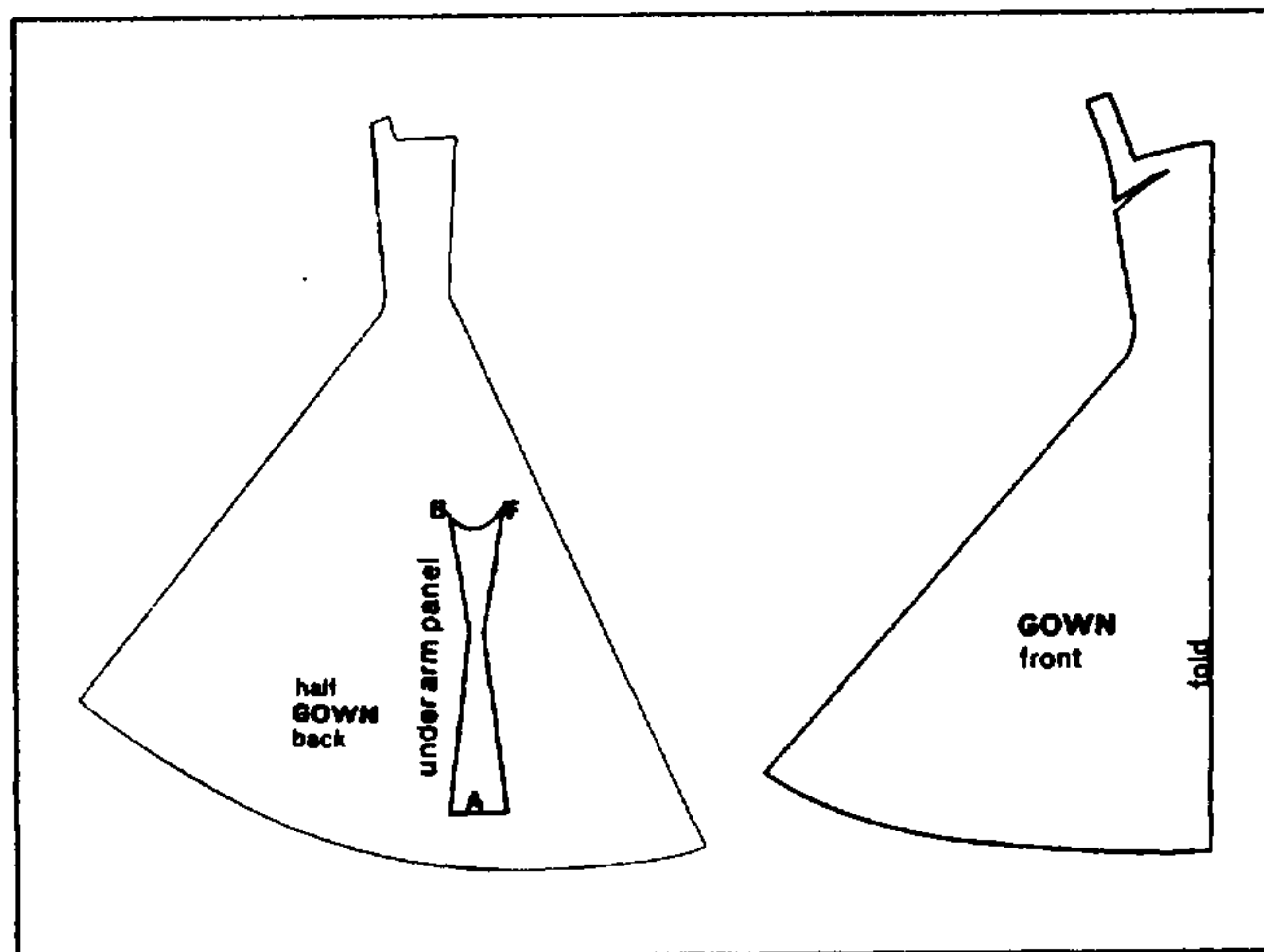
<그림 14> Gown(Robe)의 bodice, 1470년



<그림 15> Gown(Robe)의 pattern, 1485년



<그림 16> Gown, 1500년



<그림 17> Gown의 pattern, 1500년

[표 2] 고딕시대 바디스 패턴의 특징*

시대 (세기)	연대	고찰의상	실루엣	허리선 (W)	옆선	다트	중심선	입체화 방법
중세 고딕 (13-15C)	1210년	Robe	fit	상하 연결	수직	없음	앞 뒤 골선	belt
	1260년				밀착 사선		앞 뒤 절개	옆선
		Gown			곡선		앞 뒤 골선	옆선 lacing
	1340년	Cotehardie			밀착 사선		앞 뒤 절개	lacing
	1380년	Gown (Surcot)	앞과장 뒤box		앞곡선 뒤텐트라인		앞트임 뒤골선	옆선 파임
	1440년	Houppé - lande	fit		텐트라인			belt
	1470년	Gown (Robe)		하이 w	밀착 사선	앞허리선	앞 뒤 트임	다트 belt
	1485년	Gown		상하 연결		앞뒤 프린 세스라인	옆다트	앞골선 뒤절개
	1500년				골선			

* 참고문헌 : Hill

중세에 이르러 의복의 형태가 입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남녀 복식이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의복을 통해 인체의 형태를 입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이시기의 의복 입체화의 초기단계이었으므로 패턴자체가 입체적이기 보다는 인체 윤곽선과 유사한 평면적이고 단순한 형태였으며, 벨트나 거들로 묶기, 끈으로 엮어서 조이기, 꼬르사아주 등을 사용하여 허리부위를 드러내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인체의 윤곽선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중세의 복식은 대부분이 상하의가 연결되었으며, 블리오 중 일부가 15세기

후반의 로브에서 허리선이 절개된 패턴이 등장하였다.

로브에 있어서 다트와 프린세스라인이 처음으로 시도되어 보다 구체적인 입체화 방법이 제시되었다.

2. 근 세

(1) 르네상스시대(16세기)

1) 복식의 특징

르네상스시대로 접어들면서 종교개혁까지 일어나 새로운 사회질서가 자리 잡게 되었고 중세의 신중심 사상이 인간중심 사상으로 변화되어 복식에도 새로운 표현 양식이 등장하였다. 즉, 인간성의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르네상스 복식의 특징은 인간의 인체미를 변형시켜 가면서까지 과장된 실루엣을 형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은 허리를 가늘게 조이고 스커트 부피를 크게 늘려 과장된 아워글라스 실루엣을 더욱 강조하였으며, 편평하게 조인 가슴, 가는 허리, 부풀린 스커트와 소매 등의 인위적인 강조를 통하여 새로운 의상미를 발견하였다.

르네상스 시대 여성의 기본 복식은 속옷인 슈미즈(chemise)와 파팅게일(farthingle), 페티코트(petticoat)를 착용하고 겉에 가운(gown, robe)를 입고 앞 가슴에 스토크(stomacher)를 대었으며, 맨 겉에는 케이프(cape)나 외투(cloak)를 착용하였다.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의 형태는 <그림 20>와 같다.

2) 패턴의 특징

르네상스시대 복식은 인체의 형태를 과장한 실루엣을 나타내었으므로, 패턴을 통해 직접적인 입체화 방법이 활용되었다.

르네상스시대 복식의 패턴은 <그림 18, 19, 21>와 같으며 패턴의 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 시대 복식의 패턴은 16세기초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허리선이 절개되어 있어서, 중세에 상하의가 연결된 패턴이 주를 이루었던 것과 대조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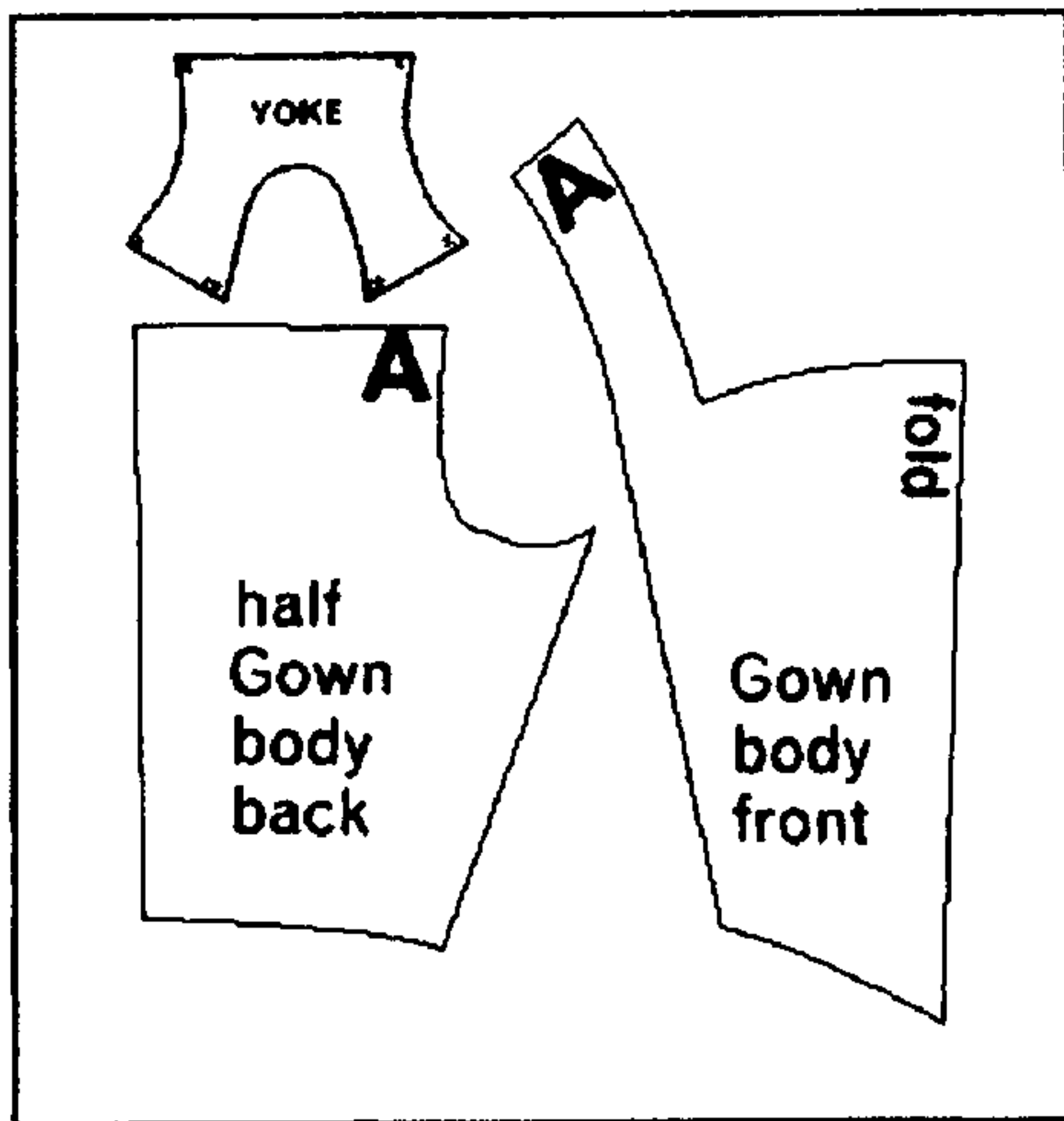
허리선이 절개된 경우 앞 허리선은 앞 중심이 뽕족하게 내려가 상체를 더욱 가늘어 보이게 하였다.

중세 말기(15세기 후반)에 등장하였던 다트와 프린세스라인 중 다트는 르네상스 초기에 프린세스라인과 함께 사용되었으며(1530년), 프린세스라인은 르네상스 복식의 거의 대부분에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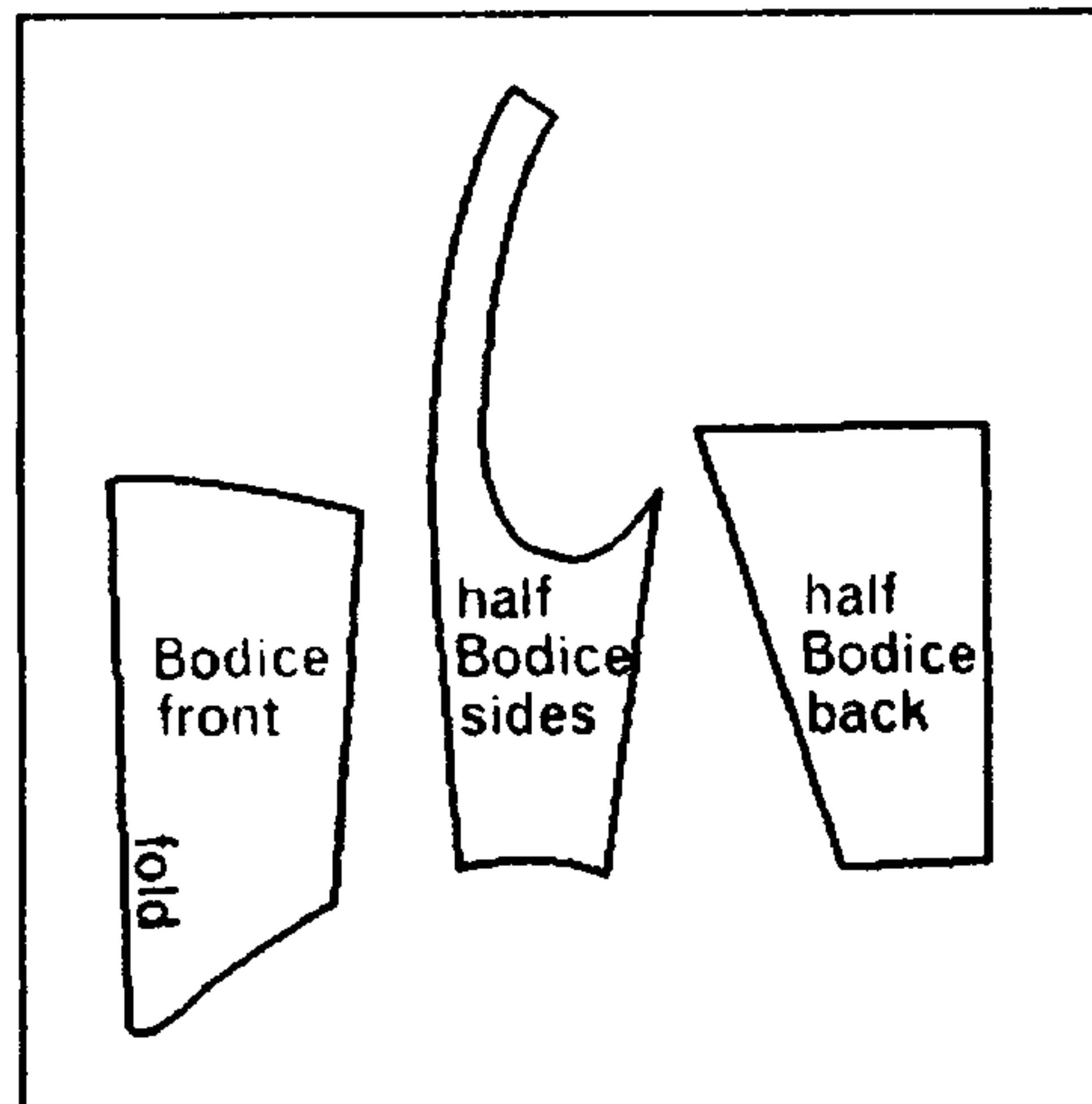
프린세스라인의 경우 르네상스 초기 이외에는 허리선이 절개됨에 따라 바디스에만 적용되었다. 프린세스라인이 적용되면서 옆선을 골선으로 하여 앞 뒤 바디스를 세 부분으로 나눈 패턴이 주로 사용되었다(그림 19). 후기에 옆선을 절개한 네 부분으로 나눈 패턴이 선보였다(그림 21).

그 밖에 새로 사용된 입체화 방법으로 요크가 있었으며 1550년경의 가운데 사용되었다.(그림 18).

따라서 르네상스 복식의 패턴의 특징은 허리선을 절개한 바디스에 옆선을 골선으로하여 프린세스라인을 적용한 3~4 부분으로 나눈 입체적인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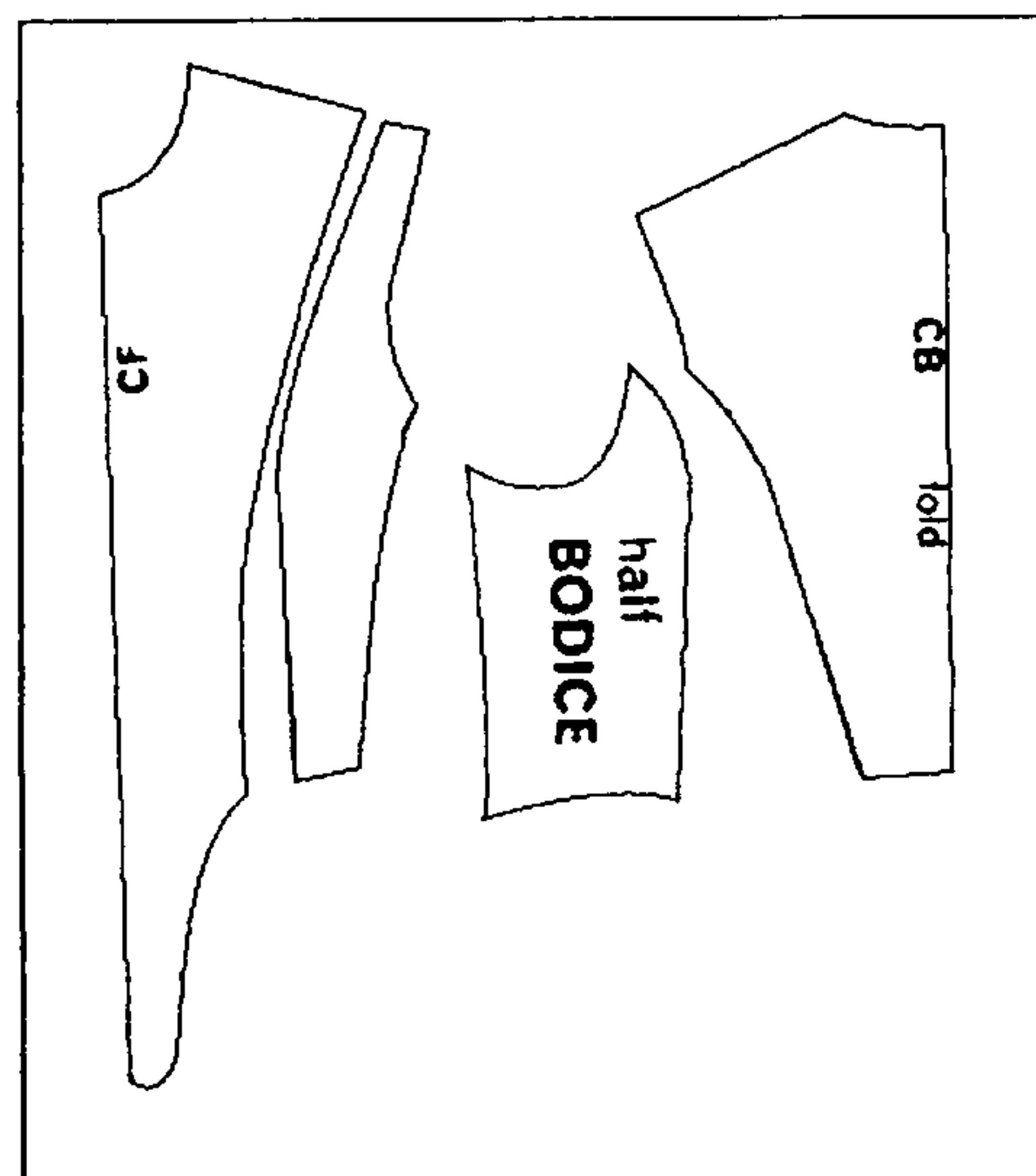
<그림 18> Gown의 bodice, 1550년



<그림 19> Gown의 bodice, 1575년



<그림 20> Gown, 1585년



<그림 21> Gown의 bodice, 1585년

[표 3] 르네상스 시대 바디스 패턴의 특징*

시대 (세기)	연대	고찰 의상	실루엣	허리선 (W)	옆선	다트	중심선	입체화 방법	
근세 르네상스 (16C)	1530년	Gown	과장	상하 연결	골선	옆다트 앞뒤프린 세스라인	앞골선 뒤절개	다트, 프린세스 라인	
	1550년			없음		옆선			
	1560년			앞 로우W		앞 뒤 프린세스 라인	앞 뒤 절개	프린세스 라인	
	1575년								앞골선 뒤절개
	1585년								앞절개 뒤골선
	1595년								

* 참고문헌 : Hill

(2) 바로크 시대(17세기)

1) 복식의 특징

17세기 초기 여성들은 귀족풍의 아름다운 스페인식 의상을 그대로 착용하였다. 그러나 1625년경부터 경제정책에 의하여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부터 사치스러운 옷 수입이 금지됨으로써 사치스러운 의복을 간편한 의복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따라서 의상의 가장 커다란 변화는 스커트 속에서 엉덩이를 크게 부풀리던 버팀대가 없어진 것이다. 상체도 딱딱한 패드·바스끄를 넣어 만든 금속제 코르셋으로 조이던 것이 활동하기 편한 부드러운 실루엣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간편한 실루엣은 네덜란드 영향으로 20여년 동안만 계속되었고, 17세기 중엽부터 상체(bodice)를 콜셋으로 조이고 스커트는 다시 페티코트를 받쳐서 부피를 늘리고 길이도 더 길게 입음으로써 거창한 실루엣으로

인체미가 과장되게 강조되었으며, 17세기말에는 허리를 더욱 좀더 가늘어 보이게 하였다.

바로크시대 여성들의 복식에는 투피스식의 로브와 스토크장식 --- 그 속에 입는 슈미즈와 페티코트, 몸매를 정리하기 위한 코르셋, 그리고 속옷 종류인 드로즈 등이 있다.<그림 25>은 바로크시대의 여성복식을 나타낸다.

2) 패턴의 특징

바로크시대 복식의 실루엣은 인체의 형태를 강조하고 과장한 것이 주로 나타났다으며, 패턴의 입체화를 통해 다양한 형태가 전개되었다.

바로크시대 복식의 패턴은 <그림 22, 23, 24, 26>과 같으며, 패턴의 특징은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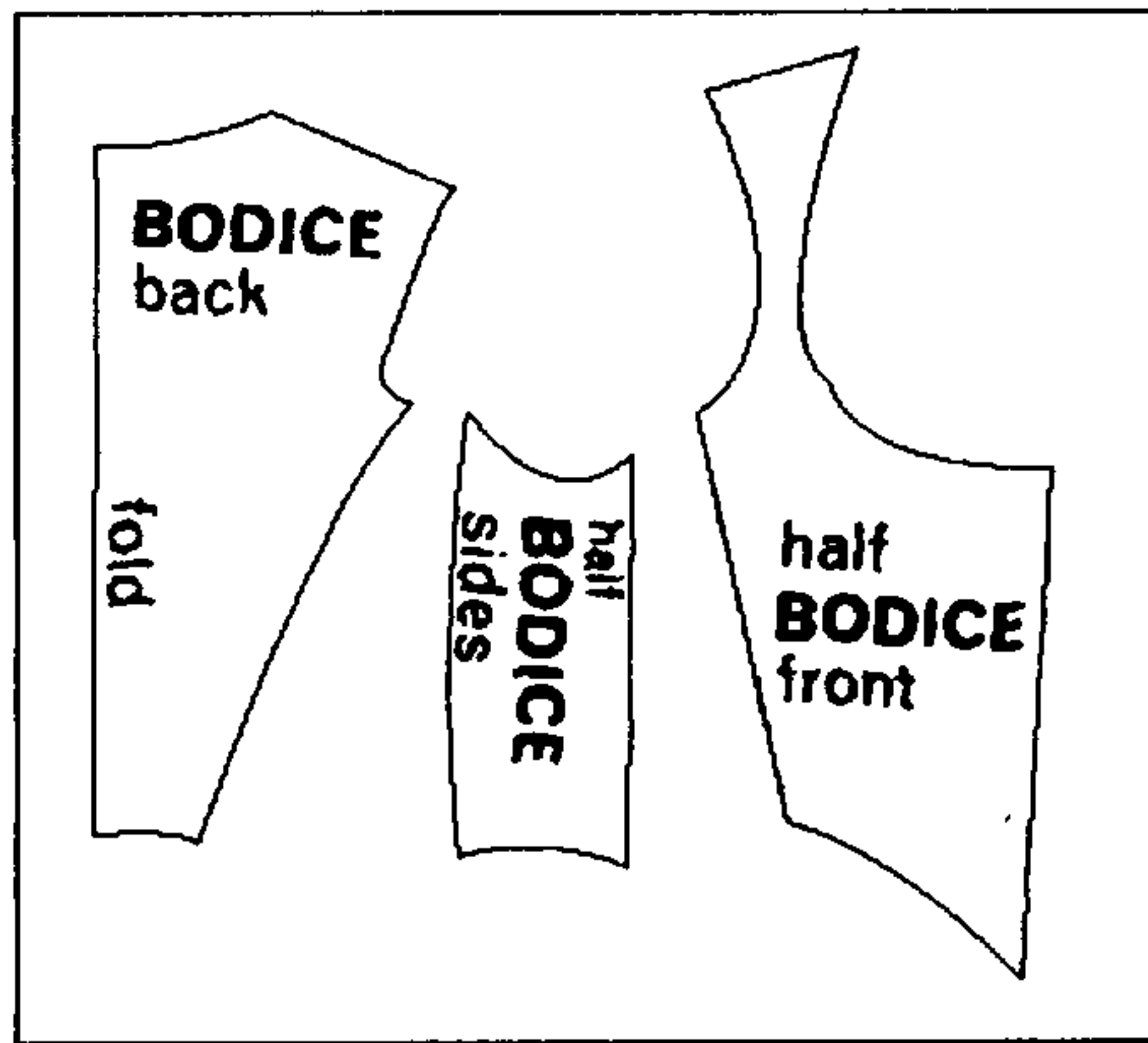
르네상스시대에 이어 가운의 바디스가 가슴과 허리를 조이는 형태였으며, 허리선이 절개되어 앞중심이 뽕족하게 내려간 예각을 이루었다. 바디스를 조이기 위해 가운의 앞중심선을 절개하여 잘라내고 스토크 등으로 앞중심 부분을 가리기도 하였다(그림 24).

거의 모든 바디스에서 프린세스라인을 사용하였는데, 앞중심 부분을 잘라낸 경우에는 뒤 바디스에만 적용하여 옆선을 골선으로 처리함으로써 바디스가 절개선이 뒤로 치우친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그림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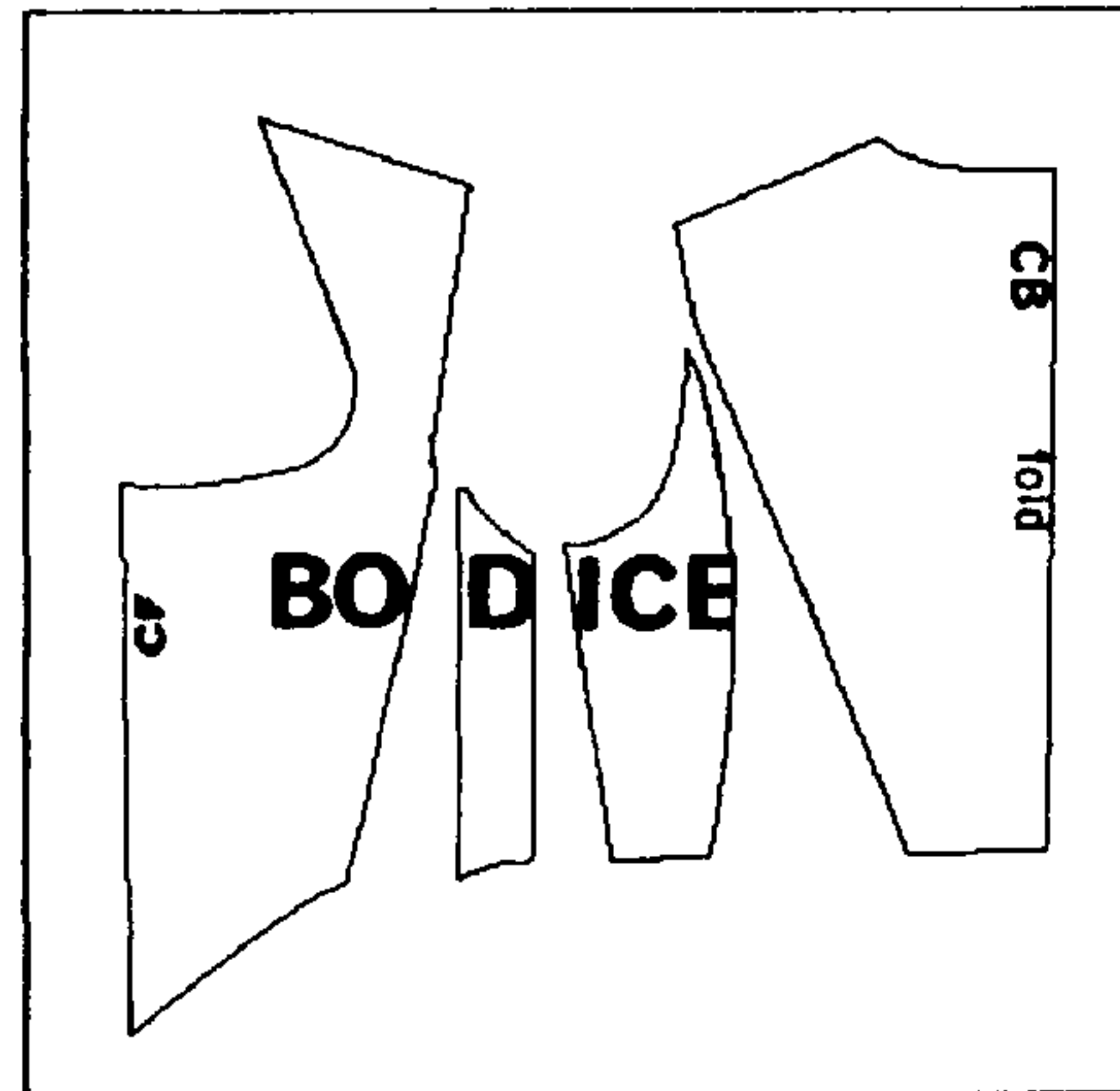
프린세스라인이 앞 뒤 바디스에 모두 적용된 경우에는 옆선을 골선으로 처리하여 바디스가 세 부분으로 나뉘거나(그림 22), 옆선을 인체에 밀착하는 사선으로 절개하여 바디스를 네부분으로 구성하기도 하였으며(그림 23), 때로는 요크를 사용하여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입체화하기도 하였다.(그림 26).

따라서 바로크시대 복식의 바디스 패턴의 특징은 가운의 경우 상체를 조이고 입체화하기 위해 대부분이 허리선을 절개하였으며 프린세스라인을 사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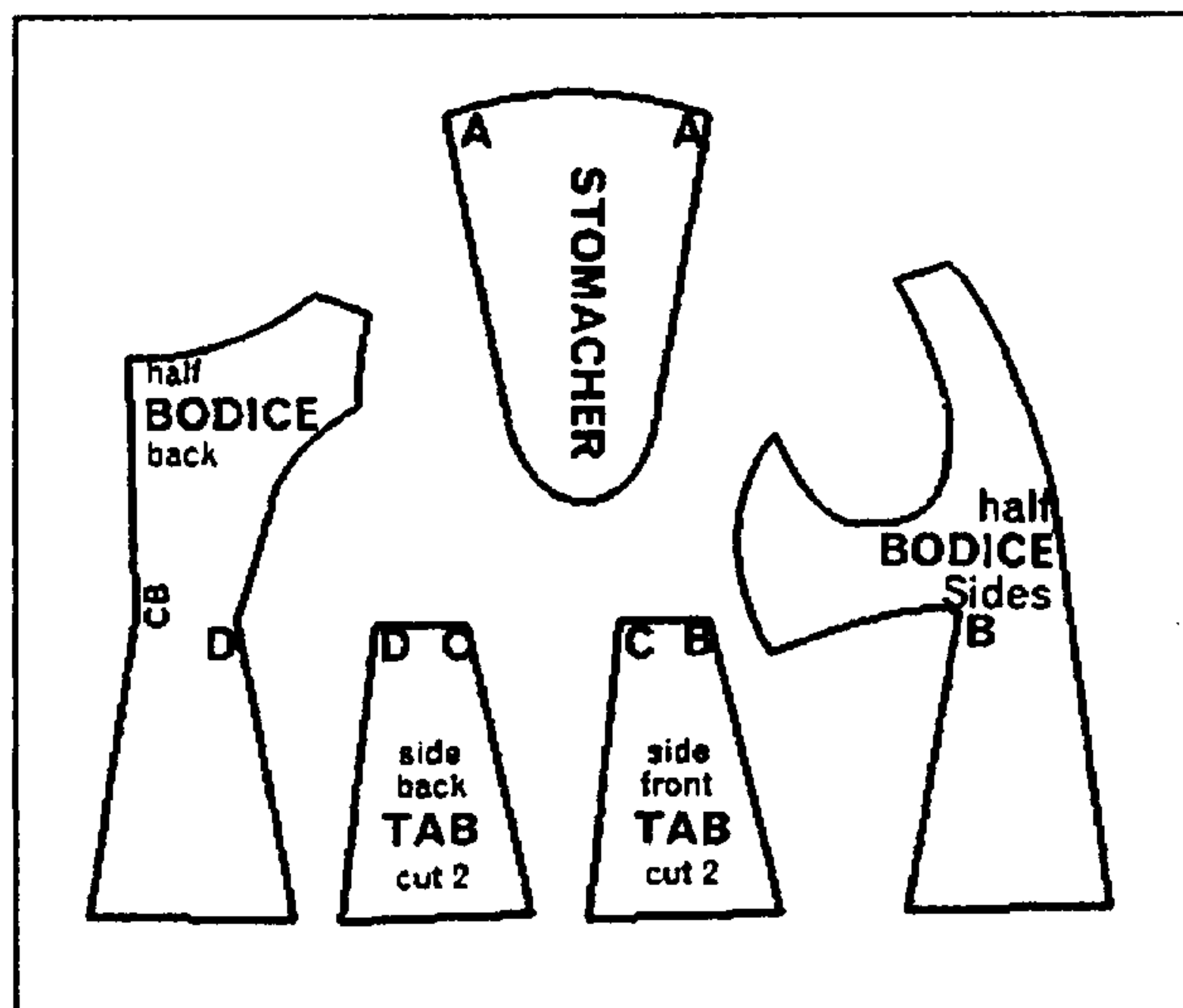
여 옆선을 골선으로 또는 절개선으로 함으로써 바디스를 2~5부분으로 나눈 형태로 되어 있었다.



<그림 22> Gown의 bodice, 16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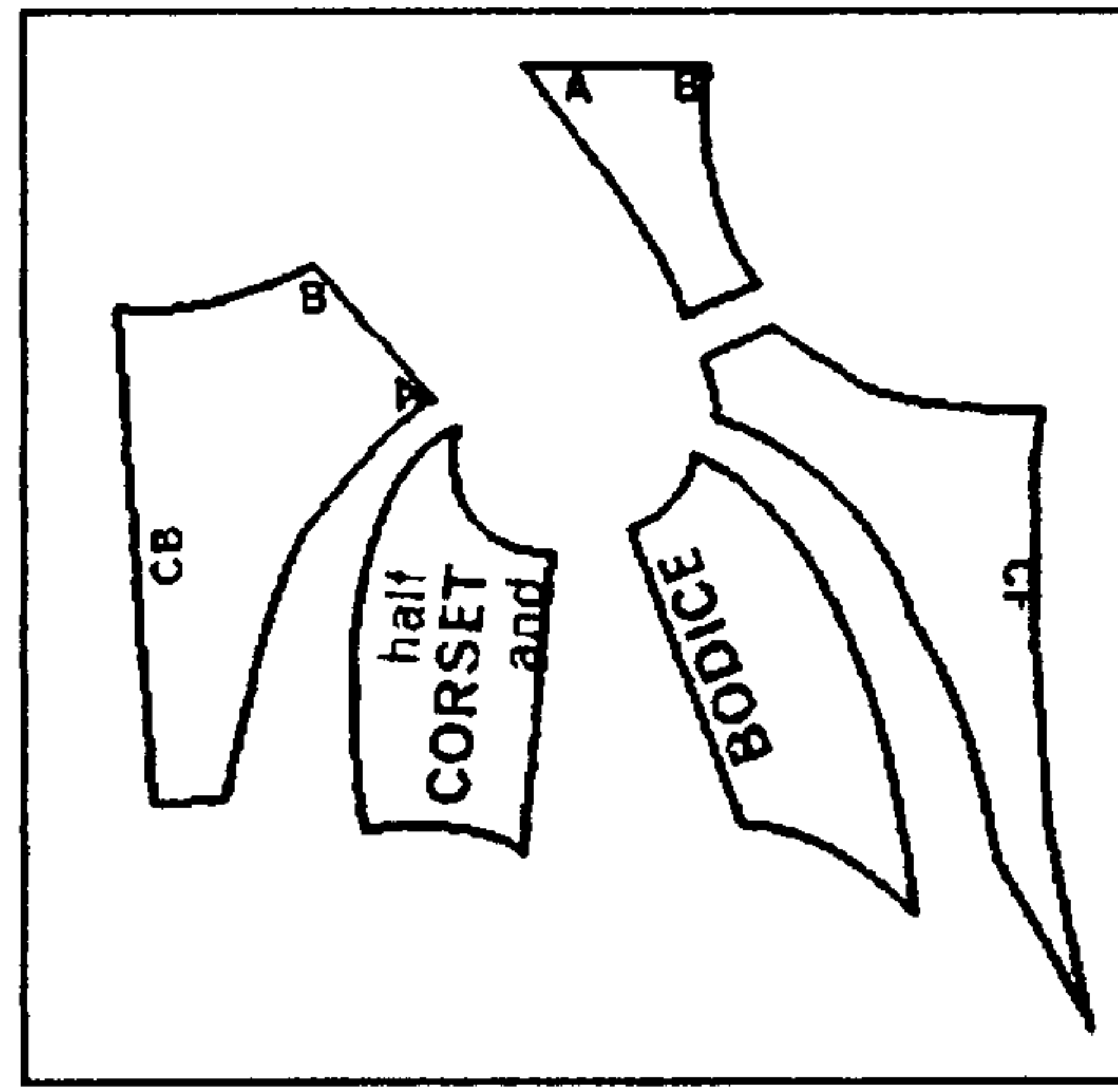
<그림 23> Gown의 bodice, 1610년



<그림 24> Gown의 Bodice, 1635년



<그림 25> Gown, 1650년



<그림 26> Gown의 Bodice, 1675년

[표 4] 바로크시대 바디스 패턴의 특징*

시대 (세기)	연대	고찰의상	실루엣	허리선 (W)	옆선	다트	중심선	입체화 방법
근세 바로크 (17C)	1605년	Gown	과장	앞로우(W) 절개	골선	앞뒤프린 세스라인	앞절개 뒤골선	프린세스 라인
	1610년				밀착사선			
	1620년				골선			
	1625년							
	1635년						밀착사선	
	1665년							
	1675년							
	1690년				골선		앞절개 뒤골선	

* 참고문헌 : Hill

(3) 로코코시대(18세기)

1) 복식의 특징

로코코의 섬세하고 우아한 취향은 여성 복식에 곡선과 꽃, 리본, 레이스, 프릴, 조화 등을 지나치게 장식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모드의 한층 더 섬세한 바탕을 형성했다. 가슴을 깊이 판 데콜테(décolleté)장식과 스토크로 장식한 꼭 끼는 상체, 가는 허리, 겹쳐 입어 부풀린 스커트, 여기에 앙가장트·활발라 등의 모든 장식과 형과 크기는 호화로움에서 부드러움으로 변하여 새로운 형태의 의상을 구성하였다.

로코코 시대의 여성의 기본 복식으로는 와또 가운(watteau gown), 로브 아라 프랑세즈(robe a la française), 로브 아라 폴로네이즈(robe a la polonaise) 등의 다양한 가운과 외투 이외에 슈미즈, 코르셋, 빠니에(panier)등의 속옷이 착용되었다.

이 시대에는 물리·화학의 발달로 염료의 질이 좋아져 직물이나 의복의 색채조화가 세련되었다. 특히 여성 가운에 줄무늬 꽃무늬가 있는 옷감이 많이 사용되었고, 가운에 꽃장식과 주름장식 등을 하여 복식사상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과 같은 의상을 만들어낸 시기라 할 수 있다.

로코코시대의 여성복식은 <그림 28, 30>과 같다.

2) 패턴의 특징

로코코시대 복식이 꼭끼는 상체와 가는 허리, 우아하게 부풀려진 스커트 등으로 인체가 과장된 실루엣을 표현함에 따라 패턴 또한 입체적인 방법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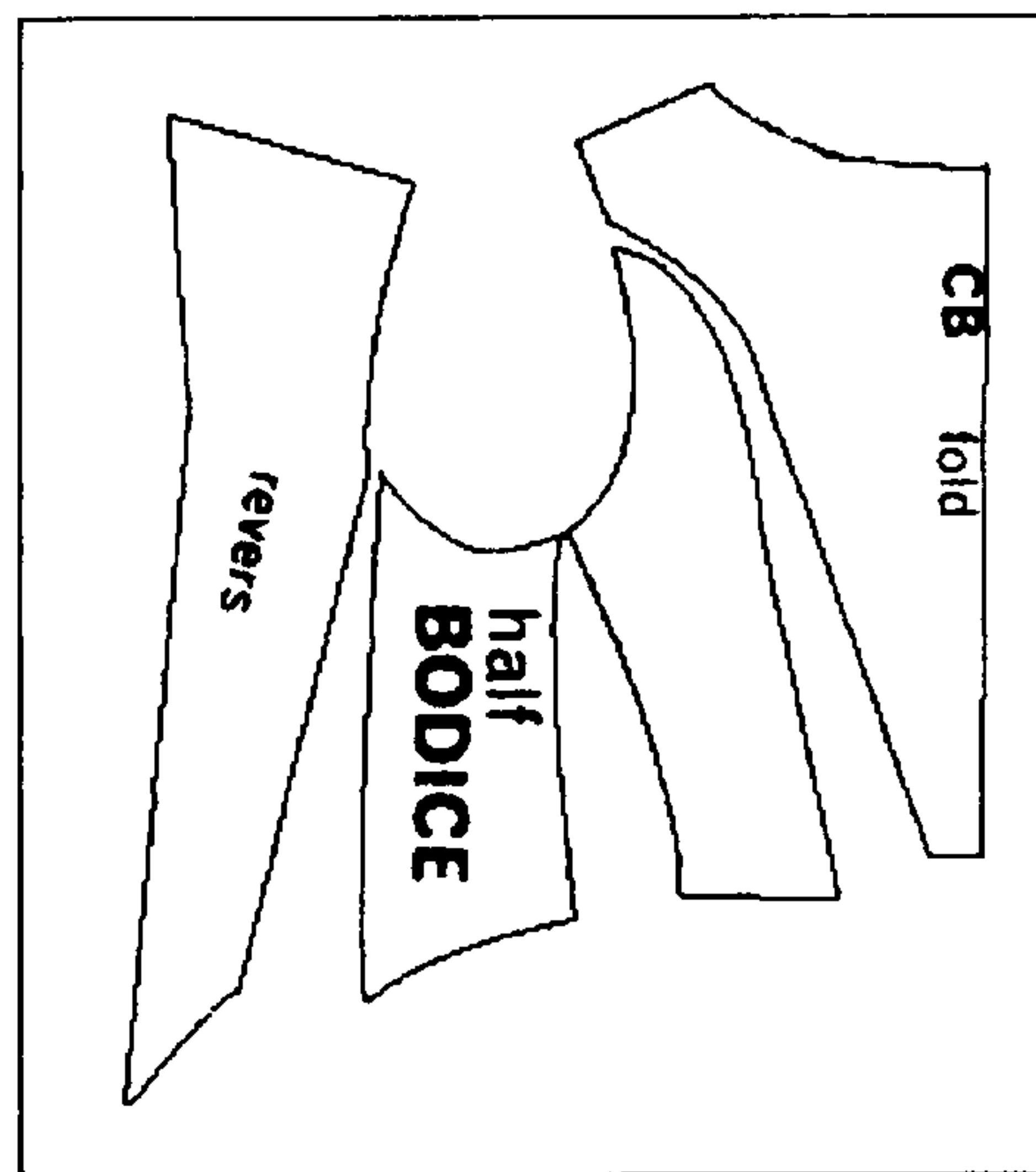
<그림 27, 29, 31, 32>은 로코코시대 복식의 패턴을 나타내며, [표 5]는 이

러한 패턴들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가운의 바디스가 꼭 끼고 스커트가 부풀려진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허리선이 절개되었으며, 바로크시대에 이어서 앞중심이 뽕족하게 내려왔다.

바디스의 앞중심을 절개하여 스토크로 가려줌으로써 좁고 가는 상체를 표현하였으며(그림 31), 상체를 입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프린세스라인을 앞뒤 또는 뒤 바디스에 적용하였으며(그림 27, 32), 요크도 사용하였다(그림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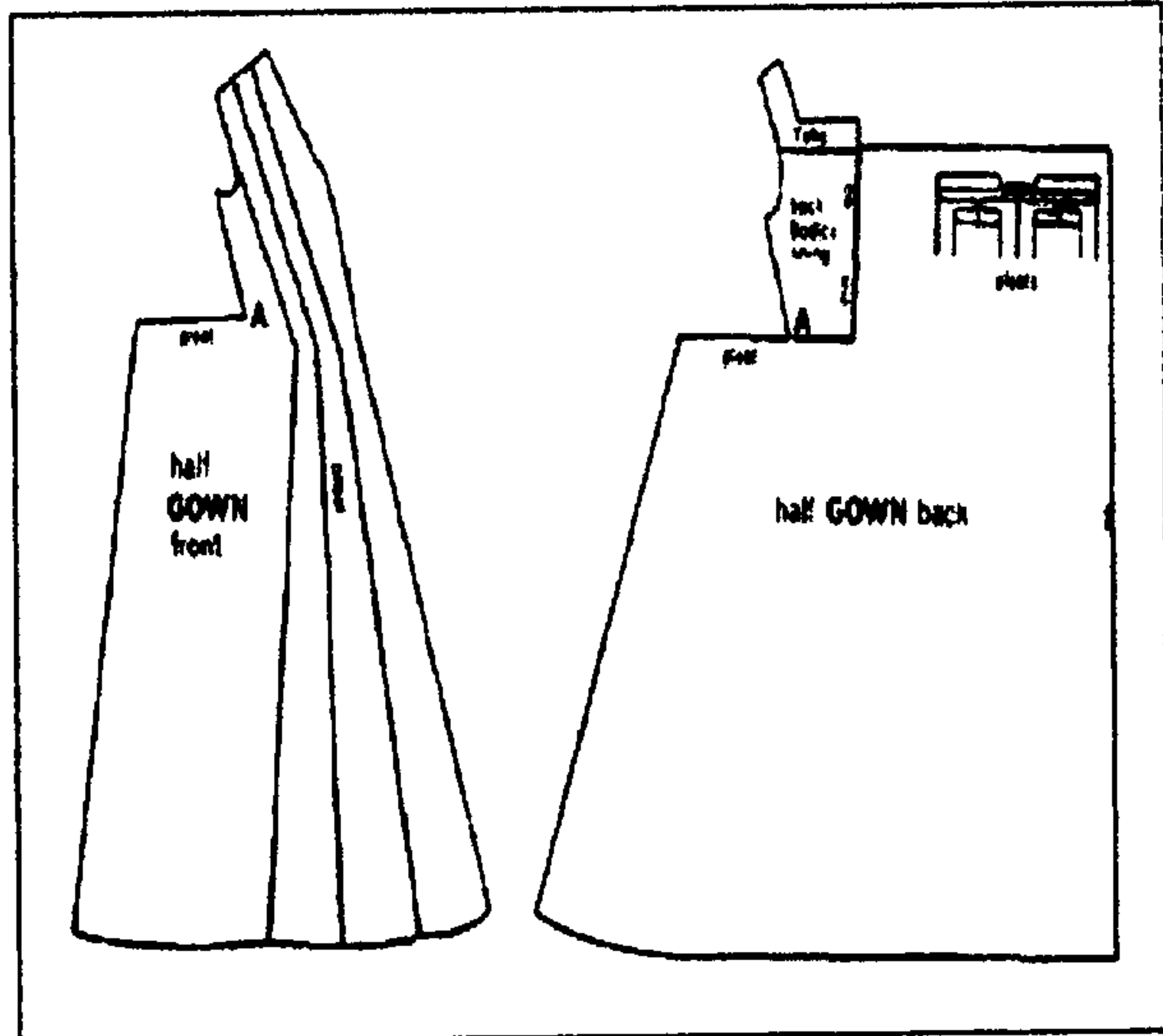
보다 발달된 패턴 절개 방법으로 옆선을 인체에 밀착하는 곡선으로 처리하기도 하였으며(그림 35, 38), 새로운 구성 방법으로와또가운(그림 28)을 비롯한 가운에서 플리츠를 사용하기도 하였다(그림 29, 31).



<그림 27> Gown의 bodice, 17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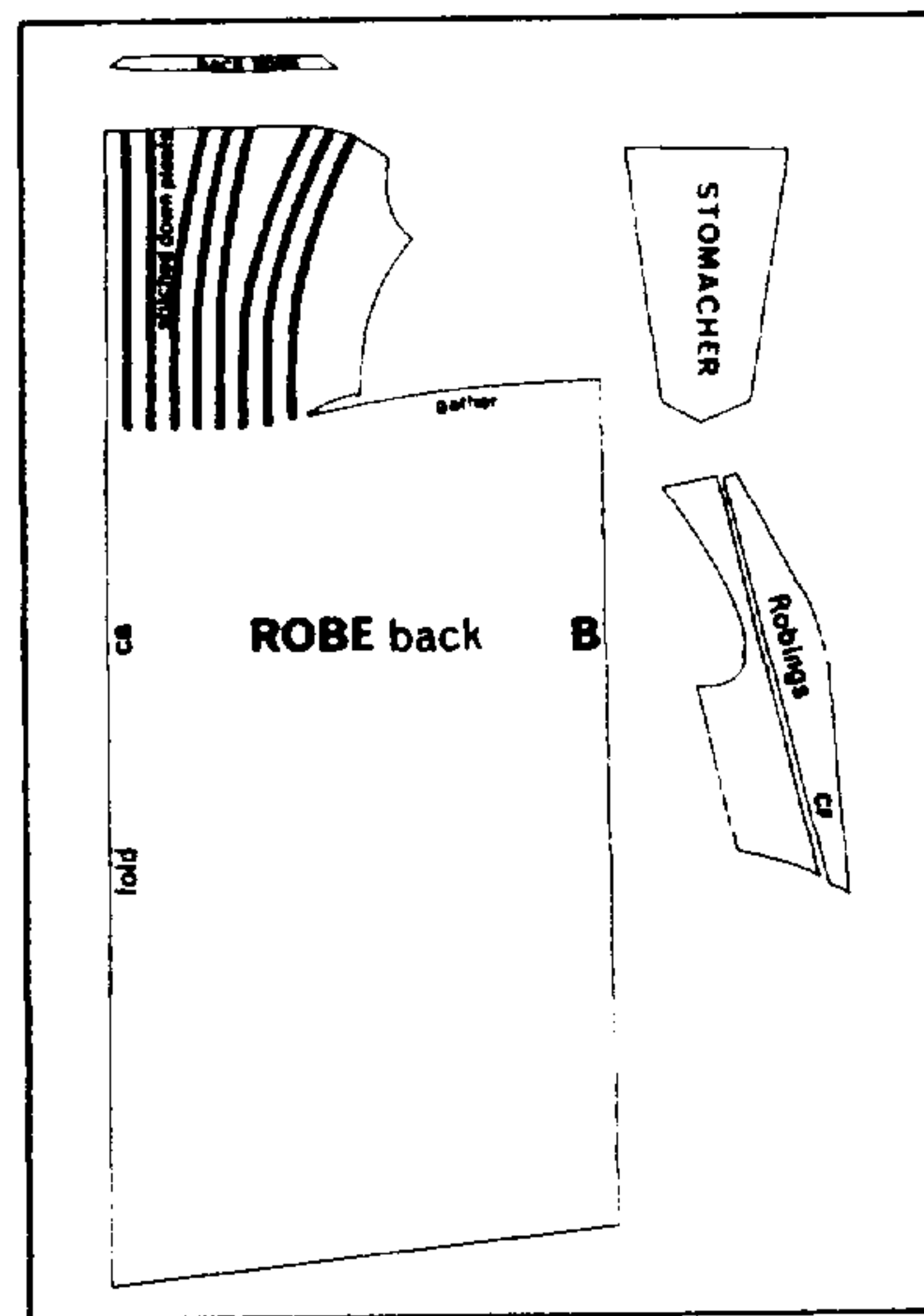
<그림 28> Watteau Gown, 17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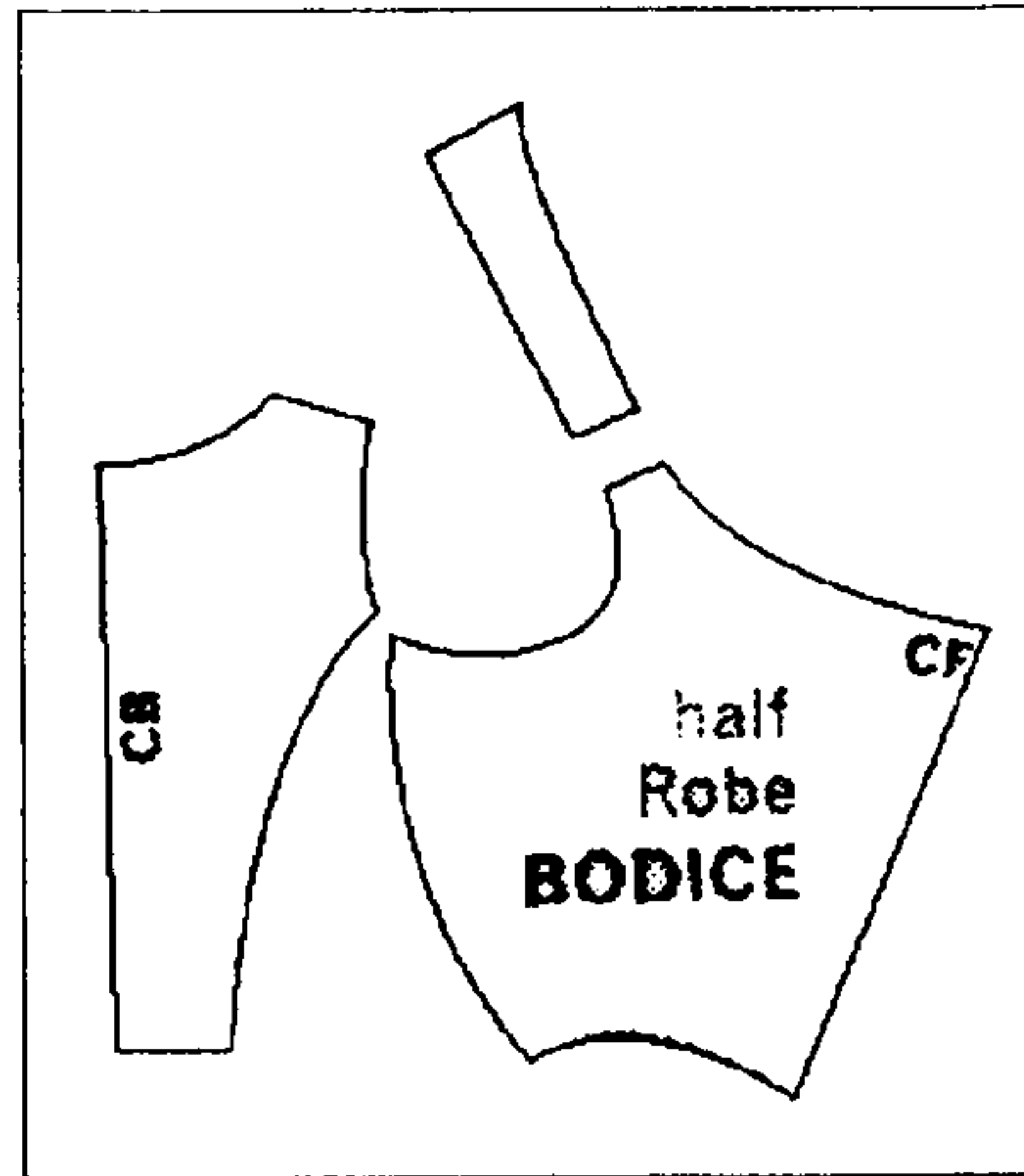
<그림 29> Watteau Gown의 pattern, 1720년



<그림 30> Robe, 1755년



<그림 31> Robe의 pattern, 1770년



<그림 32> Robe의 Bodice Pattern, 1785년

[표 5] 로코코 시대 바디스 패턴의 특징*

시대 (세기)	연대	고찰 의상	실루엣	허리선 (W)	옆선	다트	중심선	입체화 방법
근세 로코코 (18C)	1705년	Gown	과장	앞로우(w) 절개	밀차 곡선	프린세스 라인	앞절개 뒤골선	프린세스 라인
	1720년	Watteau Gown	텐트라인	상하 연결	밀착 사선			폴리츠
	1740년	Robe	과장	절개	밀차 곡선		앞 뒤 절개	
	1755년					앞로우(w) 절개		
	1770년							
	1780년							
	1785년							

* 참고문헌 : Hill

3. 근대

(1) 엠파이어 스타일 시대(1789년~1815년)

1) 복식의 특징

프랑스혁명 이후부터 복식에 고전주의가 부활되어 고대 그리스의 복식형태를 닮은 복식이 등장하였다.

프랑스 혁명 직후 잠시 동안은 귀족의 화려한 의상은 사라지고 귀족과 평민 모두가 검소한 옷차림을 하였으나 나폴레옹이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 프랑스 궁중의상은 다시 화려해 졌다.

엠파이어 스타일의 특징은 여성의 가운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복식을 회상하게 하는 형태로서 자연스러운 신체의 선을 살린 실루엣에 가슴을 많이 내놓고 허리선이 유방 바로 밑까지 올라간 하이웨이스트 라인에 띠를 매어 가슴을 강조한 것이었다.

19세기 초기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모두 홀쭉하고 가냘픈 튜블러(tubular) 실루엣에 높은 허리선과 가볍게 몸에 감기는 옷감을 사용하였다.

엠파이어 스타일의 여성 의상으로는 슈미즈 가운(chemise gown), 로브(robe), 스펜서(spencer), 외투로는 플리스(plisse), 르덴고뜨(redingote) 등이 있다.

가운의 소재로는 머슬린(muslin)을 많이 사용하였고 공단, 크레이프(cvepe), 수놓은 직물, 레이스 등을 사용하였다.

엠파이어스타일시대의 여성복식은 <그림 33>과 같다.

2) 패턴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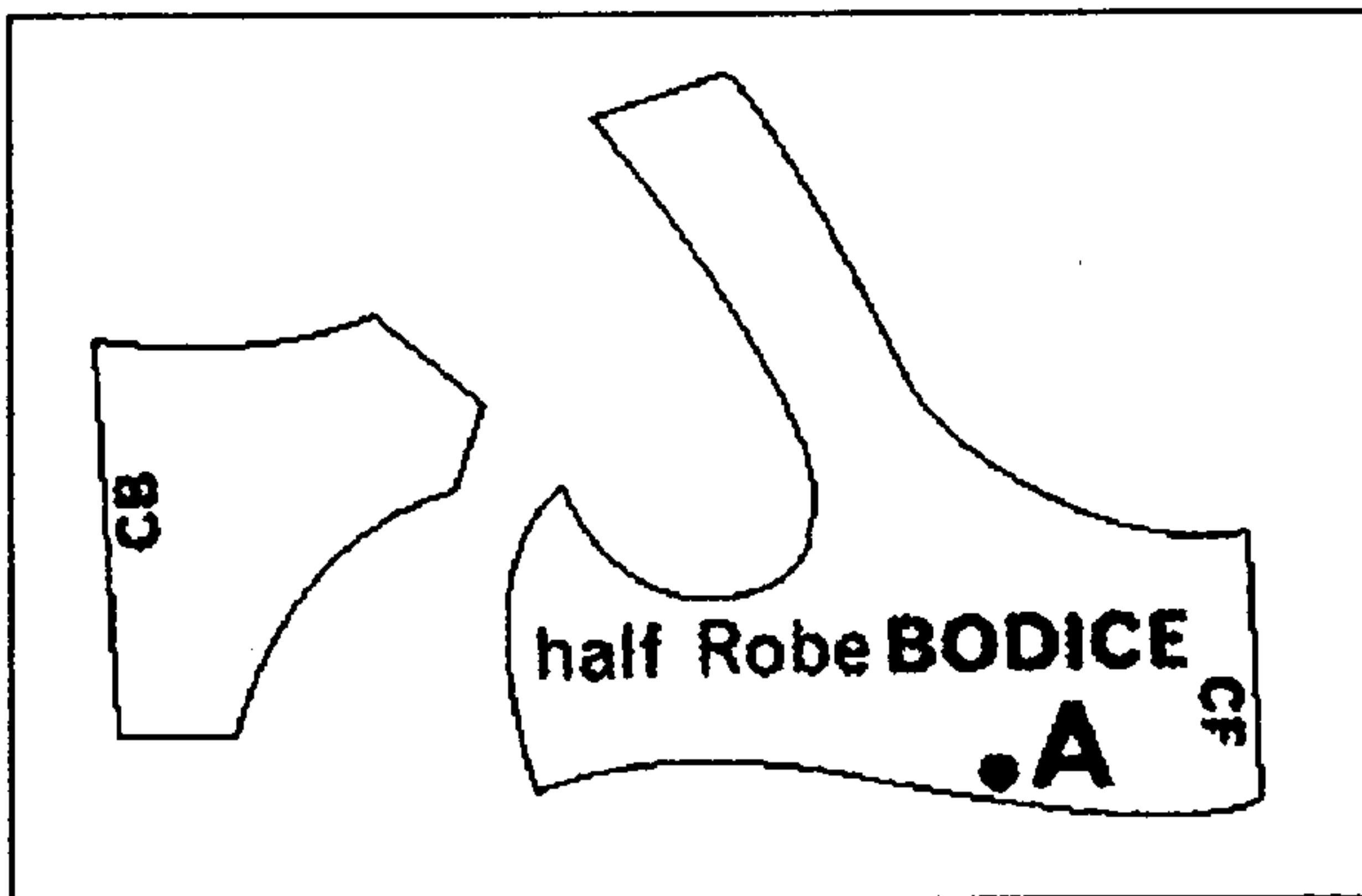
엠파이어스타일시대의 복식은 하이웨이스트에서 허리선을 절개하여 스커트를 부풀리지 않았으므로 인체의 선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튜블러 실루엣을 나타내었다.

바디스의 옆선은 대체로 골선으로 처리되었으며 뒤바디스에 프린세스라인이 적용되었다. 하이웨이스트로 절개함으로써 앞 바디스는 요크화 되거나 개더 또는 작은 플리츠를 적용하거나 다트처리를 함으로써 패턴을 입체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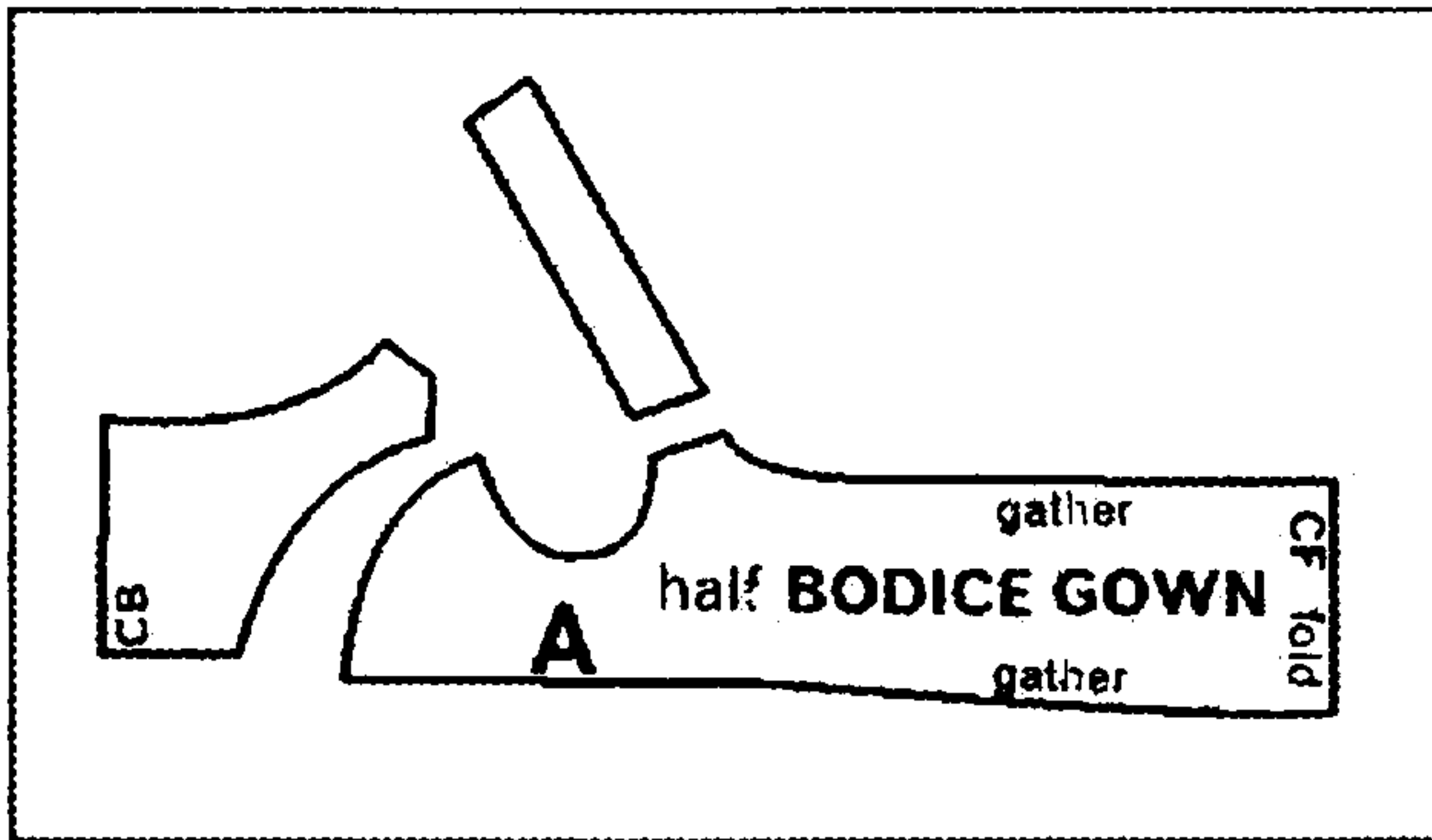
엠파이어스타일은 고대복식과 유사한 실루엣으로 약 35년 정도 이어졌으며 근세의 복식스타일과는 대조적으로 인체를 과장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인체를 표현하였다. 엠파이어 스타일의 복식이 고대 복식과 유사하지만 패턴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중세와 근세를 거치면서 입체화 방법이 적용되어 다트, 프린세스라인, 허리선 절개를 통한 요크화 등이 활용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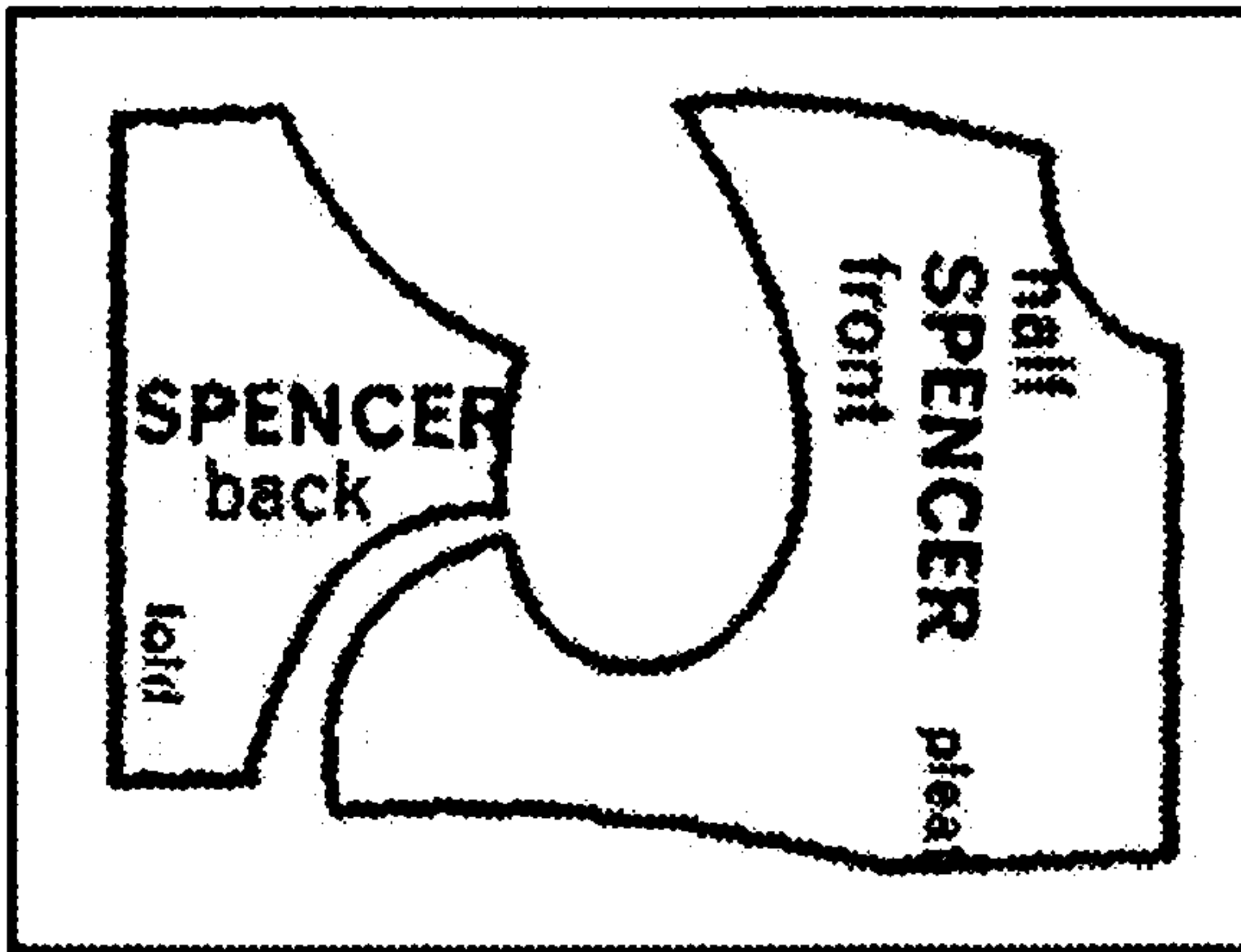
<그림 33> Chemise Gown 과 Spencer, 18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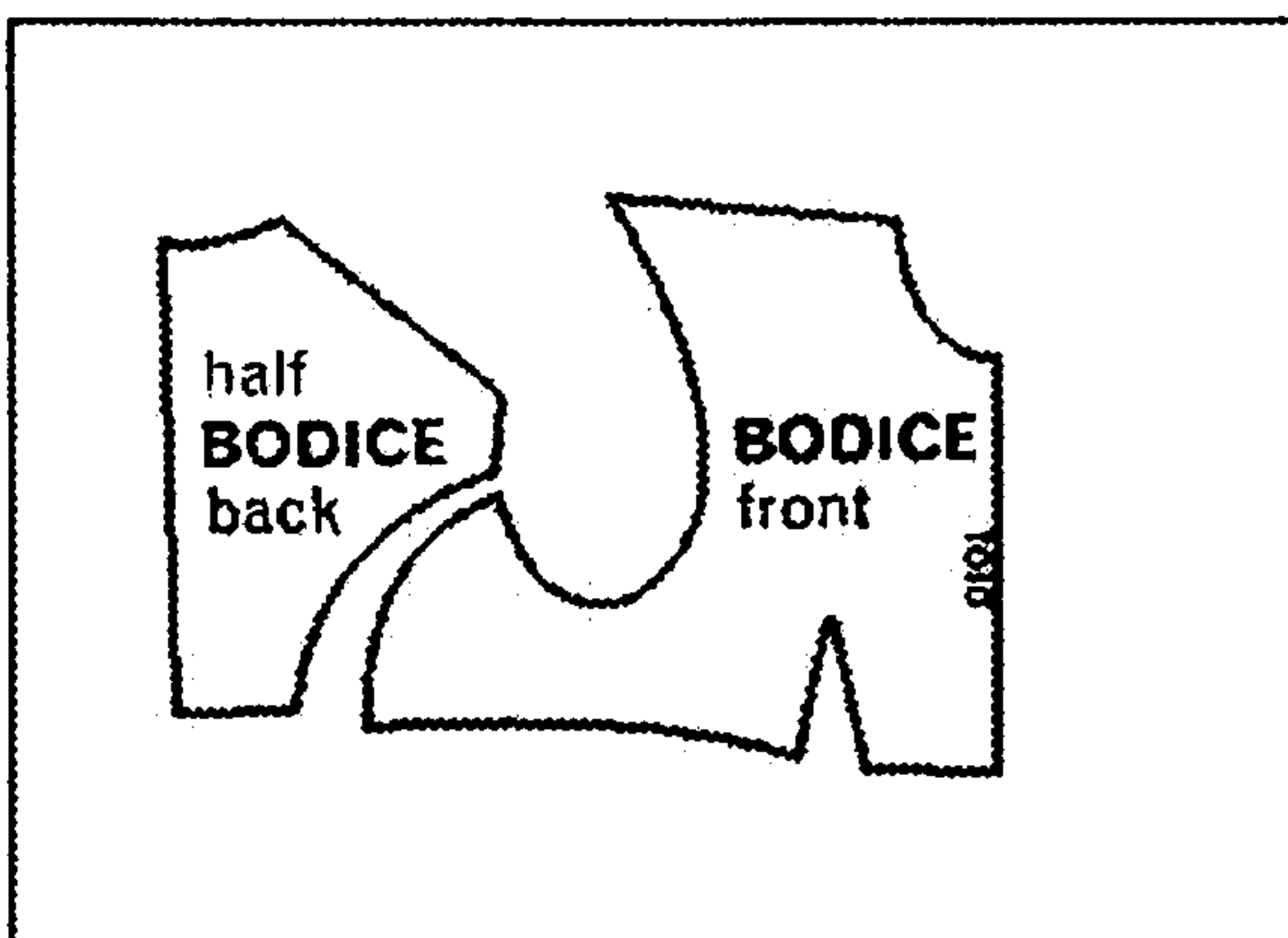
<그림 34> Robe의 Bodice, 1795년



<그림 35> Gown의
Bodice, 1805년



<그림 36> Spencer의
Bodice, 1815년



<그림 37> Spencer의
Bodice, 1815년

[표 6] 엠파이어스타일시대 바디스 패턴의 특징 *

시대 (기간)	연대	고찰 의상	실루엣	허리선 (W)	옆선	다트	중심선	입체화 방법
근대 엠파이어 스타일 (1789- 1815)	1785년	Gown	튜블러	하이W	골선	뒤프린세스 라인	앞절개	하이W 프린세스라인
	1795년	Gown	box		골선	없음	-	하이W 프린세스라인
	1805년	Gown	과장		골선	없음	앞골선 뒤절개	하이W 프린세스라인 개더
	1815년	Gown	box			앞허리다트 뒤프린세스 라인	-	하이W 프린세스라인 다트
		Spencer Jacket	밀착		골선	뒤프린세스 라인		하이W 프린세스라인 폴리츠

* 참고문헌 : Hill

(2) 로맨틱 스타일 시대(1815년~1848년)

1) 복식의 특징

나폴레옹시대가 끝난 후 왕정이 복고됨에 따라 귀족중심 사회가 재개되었으며, 복식의 양식도 귀족풍의 우아한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여성복의 경우 어깨를 드러내 놓고 소매를 과도하게 부풀렸으며 허리를 조이고 스커트를 넓게 퍼지게하여 X자형의 실루엣을 만들었으며, 곡선과 부르러운 주름으로 장식하여 화려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로맨틱스타일의 초기에는 하이웨스트를 유지하면서 어깨선만 넓어져서 균형이 잡히지 않았으나 허리선이 제 위치로 내려오면서 뽀족한 예각을 이루

어 더욱 허리를 가늘어 보이게 하였고, 스커트는 더욱 부풀려져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이 시기에는 특히 볼 가운(ball gown)이 발달하였으며, 코르셋과 페티코트가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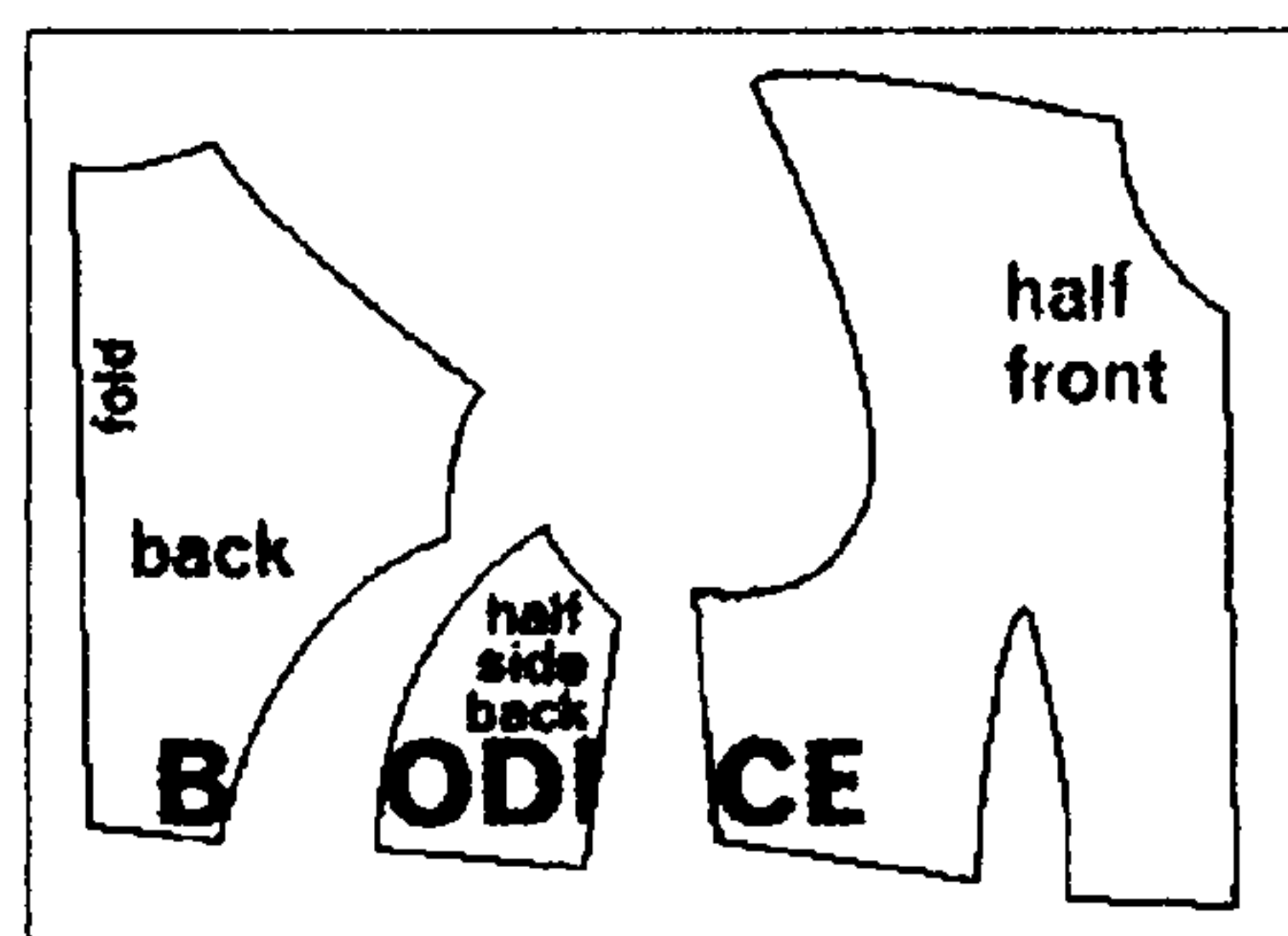
로맨틱스타일시대의 여성복식은 <그림 39>와 같다.

2) 패턴의 특징

로맨틱스타일은 약 30여년간 지속되면서 엠파이어 스타일의 튜블러 실루엣을 크리놀린 스타일의 과장된 실루엣으로 변화시키는 과도기적 성격을 나타내어 허리를 조이고 소매와 스커트를 부풀리는 X자 실루엣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X자 실루엣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체는 꼭 맞는 형태를 유지하였으며 바디스 패턴에서 의복을 입체화하는 다양한 방법이 전개되었다.

X자 실루엣을 나타내기 위하여 허리선이 절개되었으며, 옆선의 경우 엠파이어 스타일과 달리 골선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체를 표현하기 위해 인체에 밀착된 곡선이 많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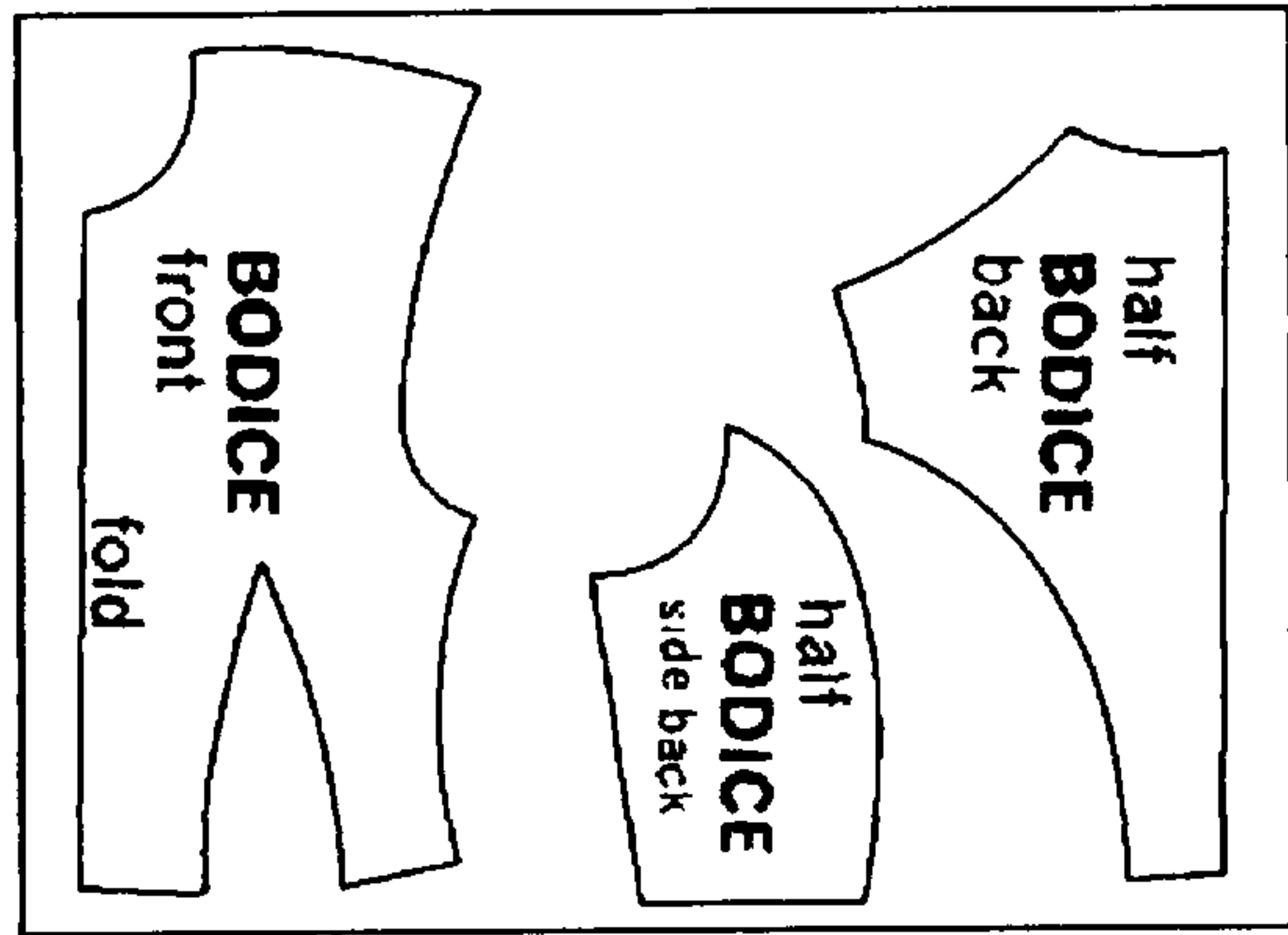
로맨틱스타일 초기에는 닥트, 프린세스라인, 옆선절개의 방법이 한꺼번에 적용되었으며(그림 38, 40), 후기에는 닥트의 곡선화, 사선화, 이중 닥트, 하나로 모아진 닥트 등 닥트 적용의 다양화가 시도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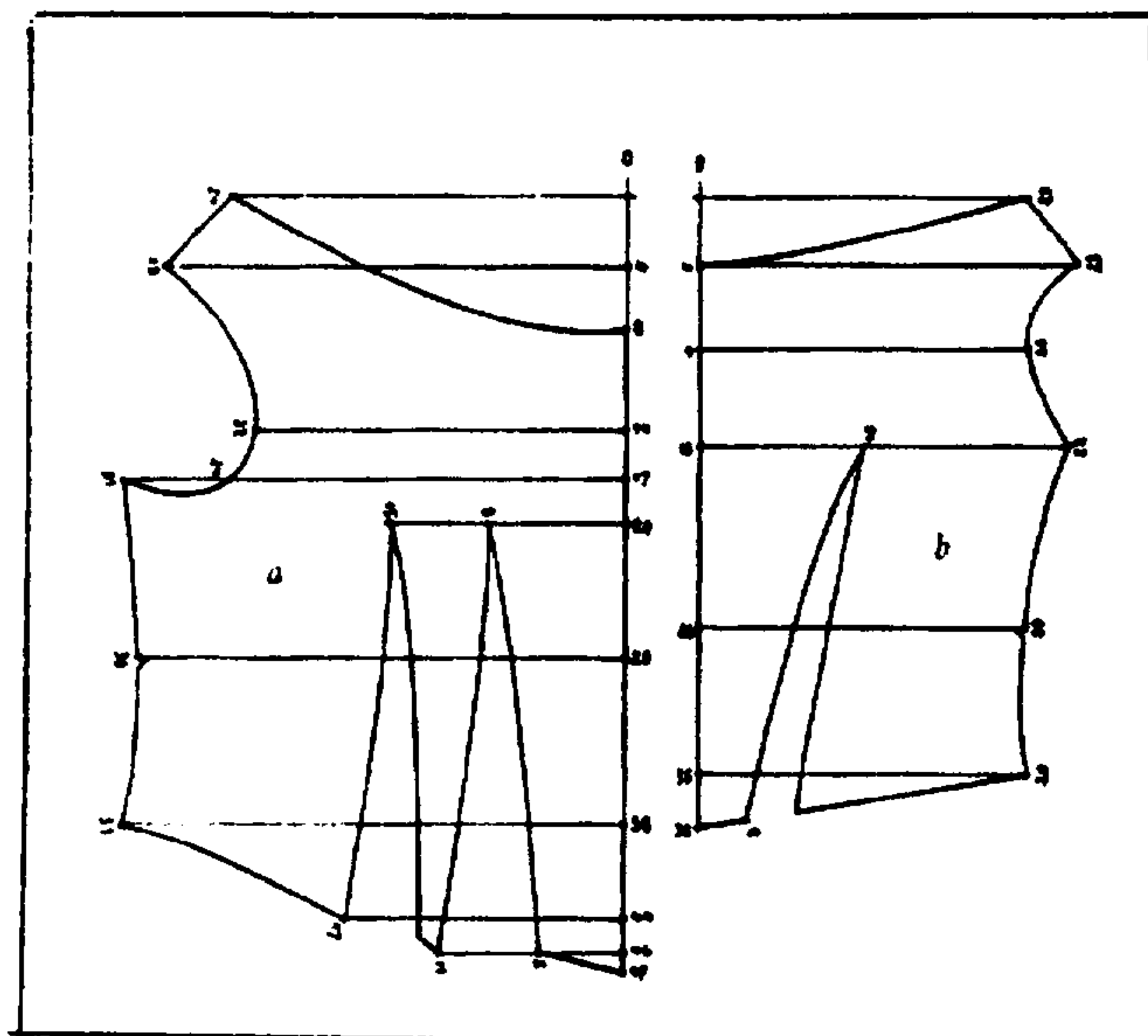
<그림 38> Gown의
Bodice, 18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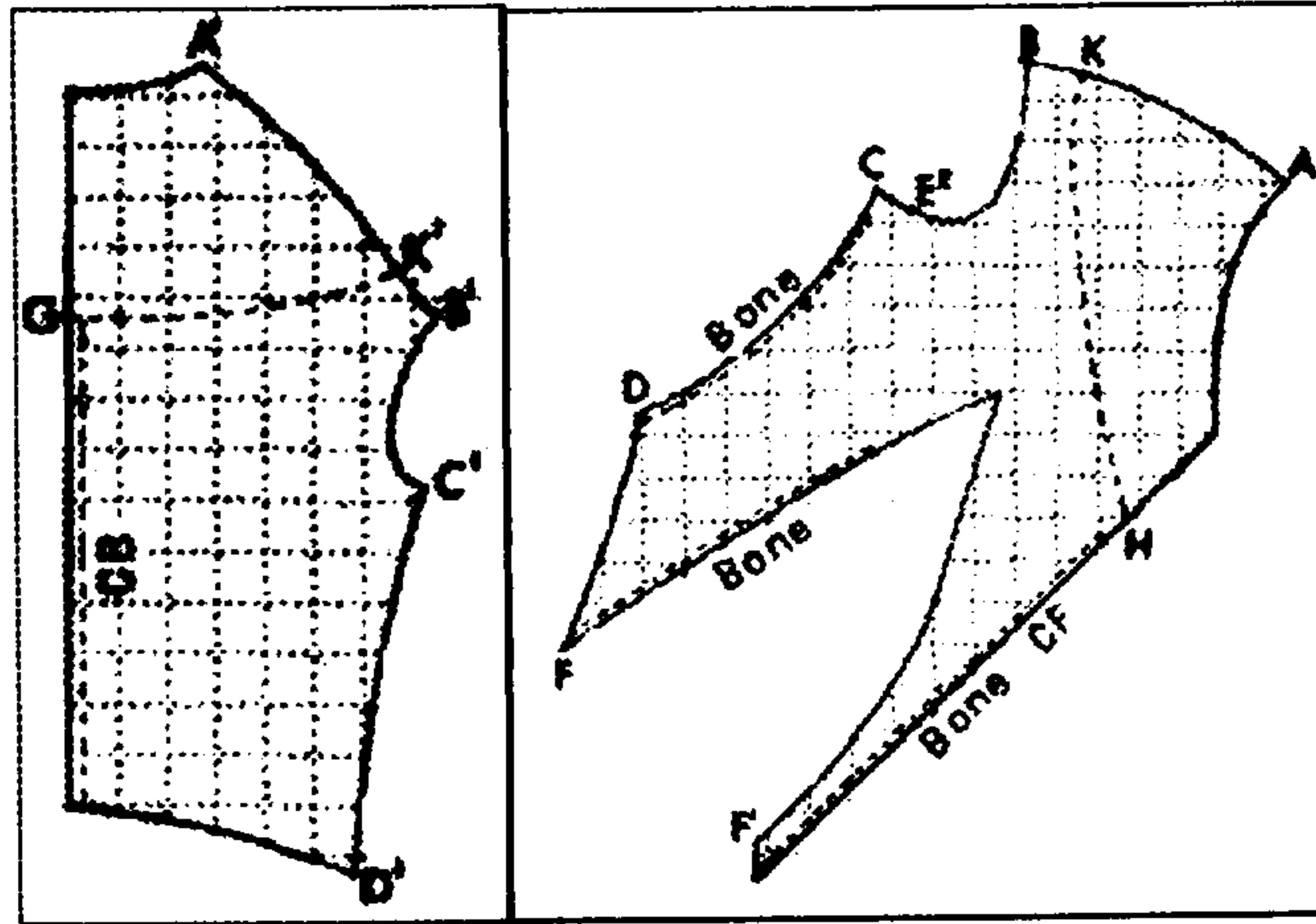
<그림 39> Gown, 1836년



<그림 40> Gown의 Bodice, 1830년



<그림 41> Dress의 Bodice Pattern (앞a, 뒤b) 1840년



<그림 42> Pelerine의 Bodice Pattern, 1830년

[표 7] 로맨틱스타일 시대 바디스 패턴 의 특징 *

시대 (기간)	연대	고찰 의상	실루엣	허리선	옆선	다트	중심선	입체화 방법	참고 문헌
근대 로맨틱 스타일 (1815~ 1848)	1825년	Gown	X자	하이W	밀착 사선	앞허리다트, 뒤프린 세스라인	앞절개 뒤골선	다트, 프린세스 라인	Hill
	1830년				밀착 곡선		앞골선 뒤절개		Hill
	1830년	Dress			밀착 사선	앞허리 다트2개, 뒤프린 세스라인	없음		다트
	1840년			밀착 곡선	앞허리 다트2개, 뒤허리다트	Payne			
	1840년				앞허리다트				
	1843년	Gown			앞허리다트, 뒤프린 세스라인	앞골선 뒤절개	다트, 프린세스 라인	Hill	

(3) 크리스티안 스타일 시대(1848년~1870년)

1) 복식의 특징

나폴레옹 3세에 의한 제2제정시대에는 귀족적인 분위기를 동경하여 로코코 양식을 다시 부활시켰다.

여성복식의 경우 허리를 가늘게 조이고 상체를 꼭맞게 하여 허리선을 뽕뽕하게 각지게 하였으며 소매는 어깨를 꼭 맞고 팔꿈치나 소매끝으로 갈수록 퍼지게 하였고 스커트는 부풀려 폭을 넓게 하였다. 1860년대에는 스커트 도련의 둘레가 10야아드가 되며 복식사상 최대로 스커트 도련이 확대되었다.

스커트를 뽕치게 하기 위해 여러개의 속치마를 겹쳐입었던 것이 이 크리스티안이라는 한 개의 속치마로 대체됨으로서 훨씬 가볍고 더 넓게 퍼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여성들은 크리스티안과 코르셋 위에 가운을 착용하고 숄 또는 외투를 착용하였다.

1846년에 재봉틀이 발달되어 손바느질로는 어려웠던 터커, 주름장식 등이 많이 이용되었으며, 그 밖에 러플, 플라우스, 리본, 자수 장식이 사용되었다.

1851년에는 블루머 스타일도 등장하였다.

크리스티안스타일시대의 복식의 형태는<그림 43>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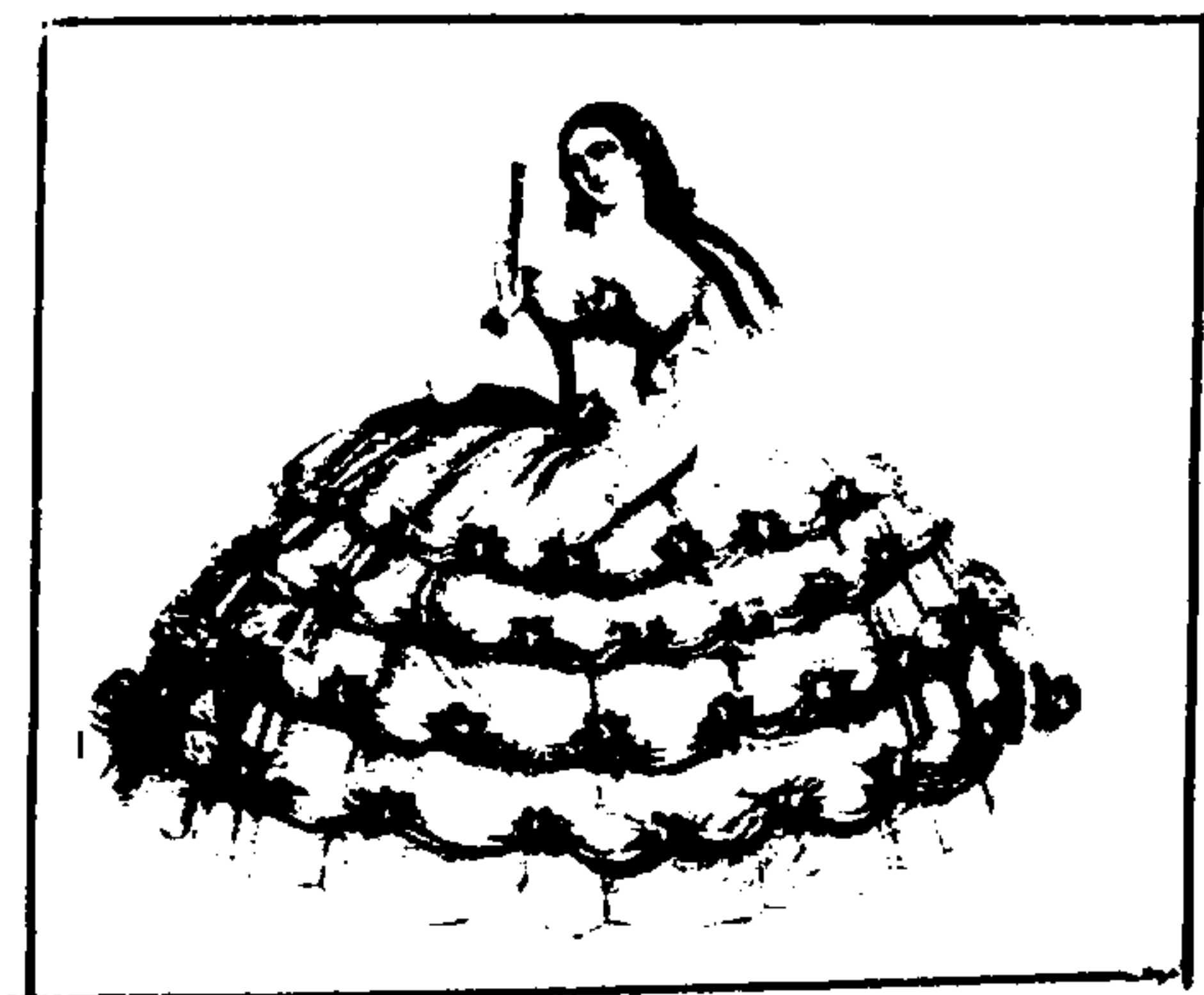
2) 패턴의 특징

크리스티안스타일 복식은 약 20여년 정도 착용 되었지만 스커트도련이 역사상 가장 넓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스커트와 대조적으로 상체는 꼭 맞는 형태였으며, 이에 따라 바디스 패턴을 입체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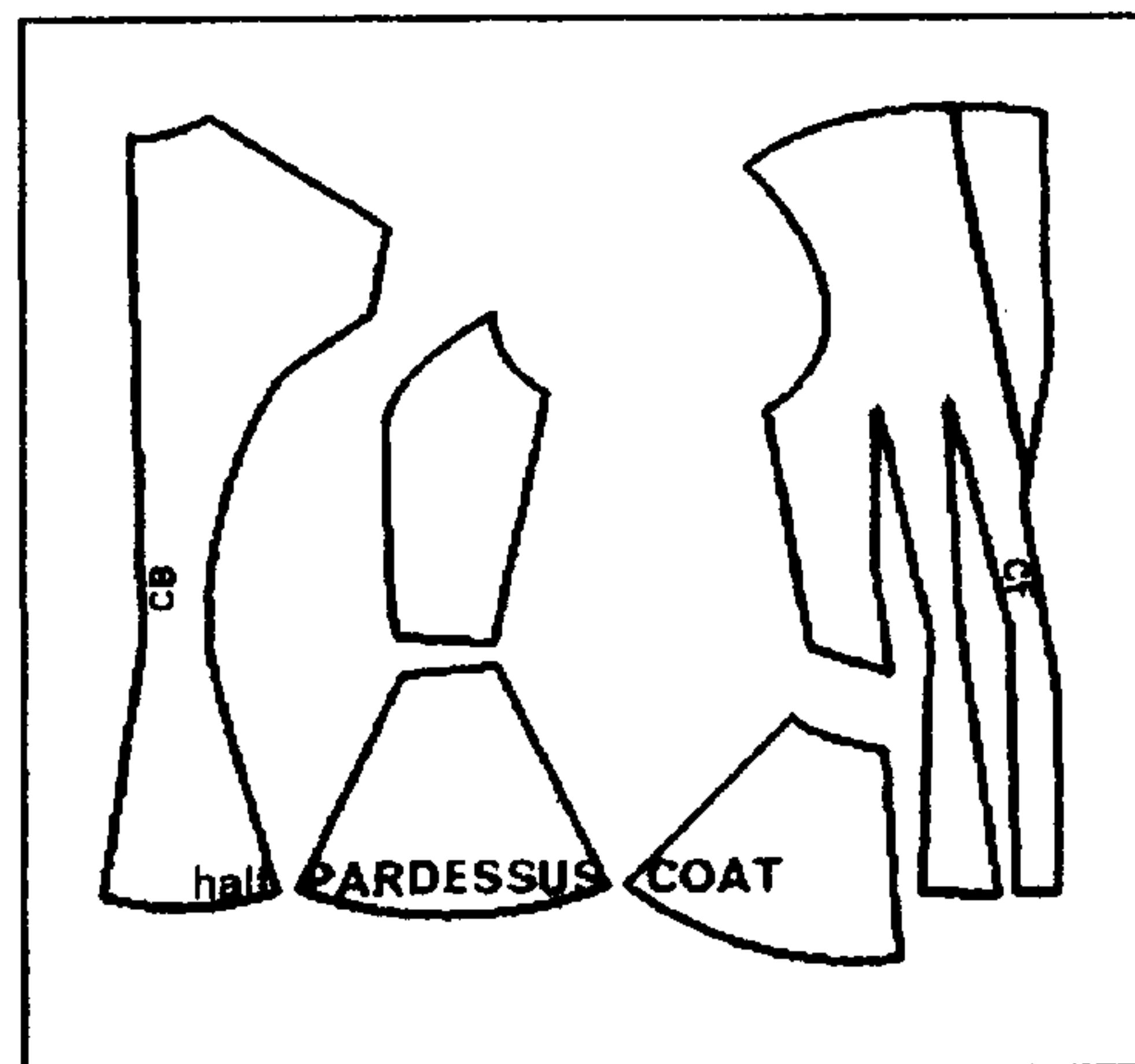
허리선은 의복종류에 따라 부분적으로 절개되거나 완전히 절개되어 새로운 형태의 패턴을 절개하였다.

옆선은 거의 모두 인체에 밀착된 사선으로 절개되었으며, 중심선 또한 앞뒤가 모두 절개되어 과장된 실루엣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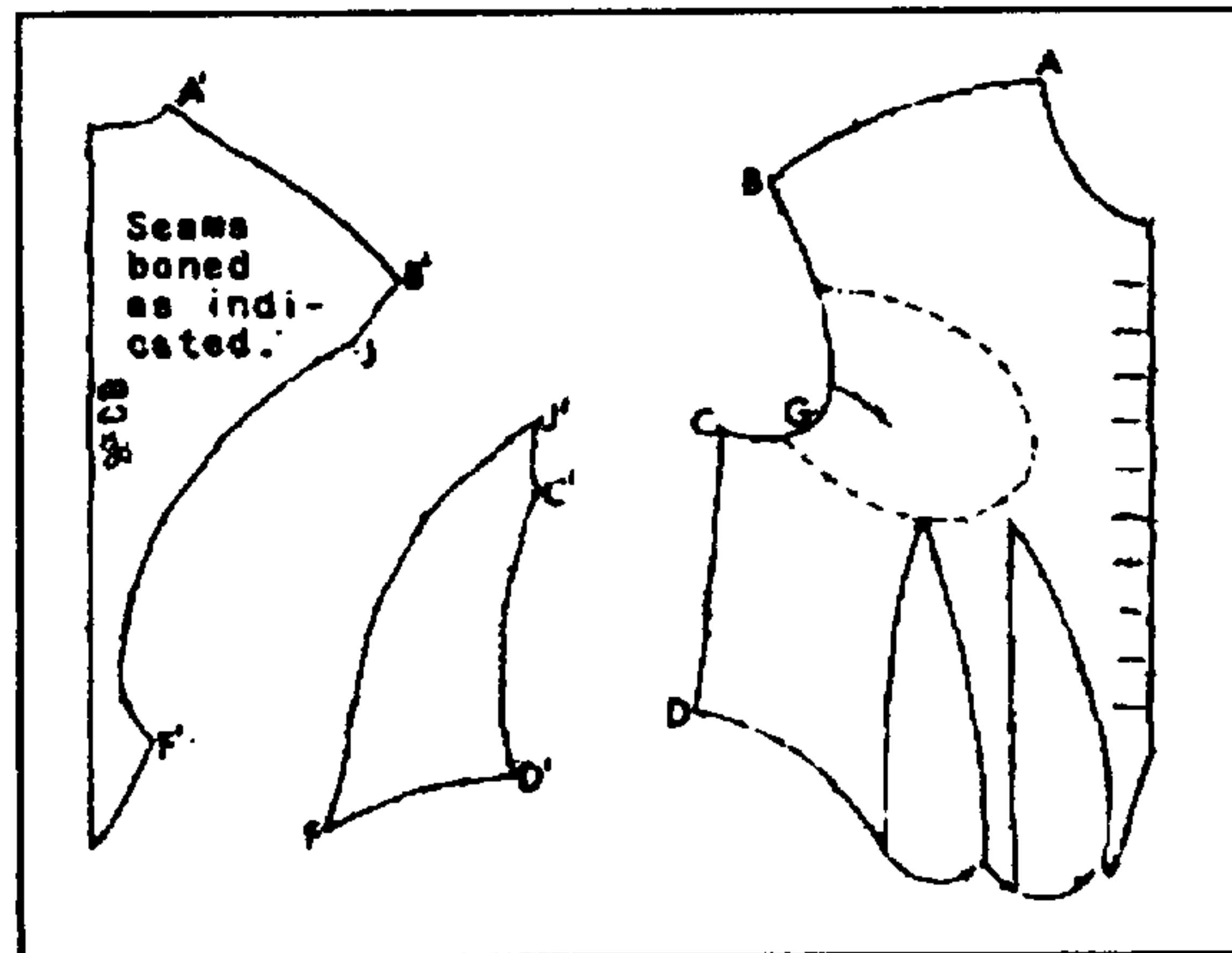
크리놀린스타일 복식의 바디스 패턴은 다트, 프린세스라인, 옆선 절개가 동시에 적용되었는데, 특히 앞 바디스의 경우 입체화 방법이 이중으로 적용되었다. 즉, 이중다트(그림 44, 45), 다트와 프린세스라인(그림 46)를 함께 적용하여 상체의 입체화를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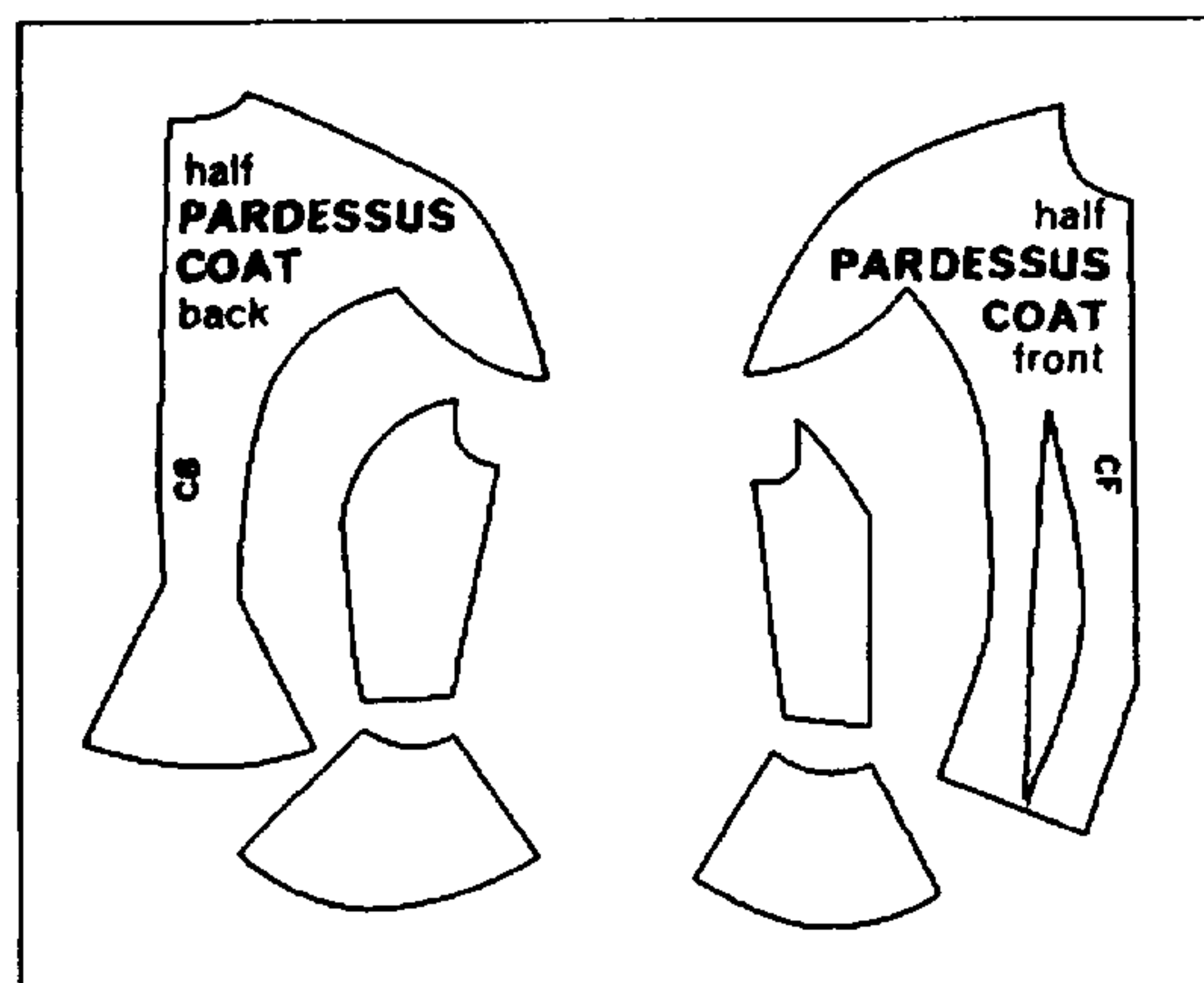
<그림 43> Pardessus Coat, 1860년



<그림 44> Pardessus Coat 의 Bodice Pattern, 1853년



<그림 45> Gown의 Bodice, 1855년



<그림 46> Pardessus Coat, 1863년 <그림 47> Pardessus Coat 의 Bodice, 1863년

[표 8] 크리놀린스타일 시대 바디스 패턴의 특징

시대 (기간)	연대	고찰 의상	실루엣	허리선	옆선	다트	중심선	입체화 방법	참고 문헌
근대 크리놀린 스타일 (1848~ 1870)	1853년	Pardessus coat	과장	부분 절개	밀착 사선	앞허리 다트2개, 뒤프린세스	앞뒤 절개	다트, 프린세스라인	Hill
		Dress				프린세스 라인	앞골선 뒤절개	프린세스라인	
	1855년	Gown		-	-	앞허리 다트2개, 뒤프린 세스라인	앞절개 뒤골선	다트, 프린세스라인	payne
	1863년	Pardessus coat		부분 절개	밀착 사선	앞허리다트 와 프린세스 라인, 뒤프린 세스라인	앞뒤 절개		Hill

(4) 버슬스타일 과 S자스타일 시대(1870~1909년)

1) 복식의 특징

로맨틱한 복장은 보불전쟁(1870-1871년)으로 인하여 지극히 검소한 양상으로 변했다. 섬유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직물이 다양하고 풍부해졌으므로 두 종류 이상의 옷감을 한 벌의 의상에 조합하여 착용하는 것이 참신한 모드로 되었다. 산업발전의 결과 직장여성이 증가하게되어 거추장스러운 드레스 대신 투피스(tow-piece)로 된 수트(suit)가 인기있는 의복이 되었으며, 여유가 생긴 중산층에서 스포츠를 즐기게 되어 운동하는데 적합한 의복개발에 주력하게 되었다.

스커트의 부풀림이 적어지면서 스커트의 드레이프리가 엉덩이로 모이게 되

어 엉덩이를 강조한 버슬스타일이 등장하였다. 버슬스타일에서는 장식적인 스커트에 비해 상의는 대체로 몸에 꼭 맞았으며 소매는 손목길이의 단순한 타이트 슬리브나 파고다 슬리브를 사용하였다.

1884년경에 엉덩이가 최대한으로 과장되게 부풀려졌다가 1890년대에 차츰 감소되면서 현대의상 모드가 확립되는 시기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는 복식에 관한 수법이 한층 세련되어져서 의복구성기술은 현저하게 진보되어 그 정점에 달하였다. 손바느질과 재봉틀에 의한 봉제기술의 섬세함은 물론 재단법과 원형 제도에 대한 연구가 한층 진보되어 그 합리성과 정밀함은 오늘날에도 놀랄 만큼 고도로 발달되었다.

버슬스타일에 뒤이어 S실루엣이 등장하였는데 가슴을 새가슴처럼 나오게 하고 허리는 코르셋으로 가늘게 조였으며 엉덩이는 튀어나오게 하고 스커트는 트럼펫처럼 벌어지게 하여 옆으로 보았을 때 S자를 이루었다

버슬스타일과 S자스타일시대의 복식의 형태는<그림 49, 51>과 같다

2) 패턴의 특징

버슬스타일에서는 엉덩이를 강조하였으나 상체는 비교적 몸에 꼭 맞았으며 인체를 입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구성방법이 시도되었다.

바디스는 허리선이 제자리에 절개되거나 로우웨이스트상에서 절개되어 스커트 위에 착용되므로써 가는 허리선을 표현하였다.

옆선은 인체에 밀착된 사선으로 정리되었으며 앞 뒤 중심선도 절개되어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바디스의 입체화 방법으로 앞 바디스에는 주로 이중 다트가 허리선에 적용되었으며 뒤 바디스에는 프린세스라인이 적용되었다.(그림 55).

또한<그림 57>과 같이 프린세스 패널 내에 다시 다트가 적용된 방법이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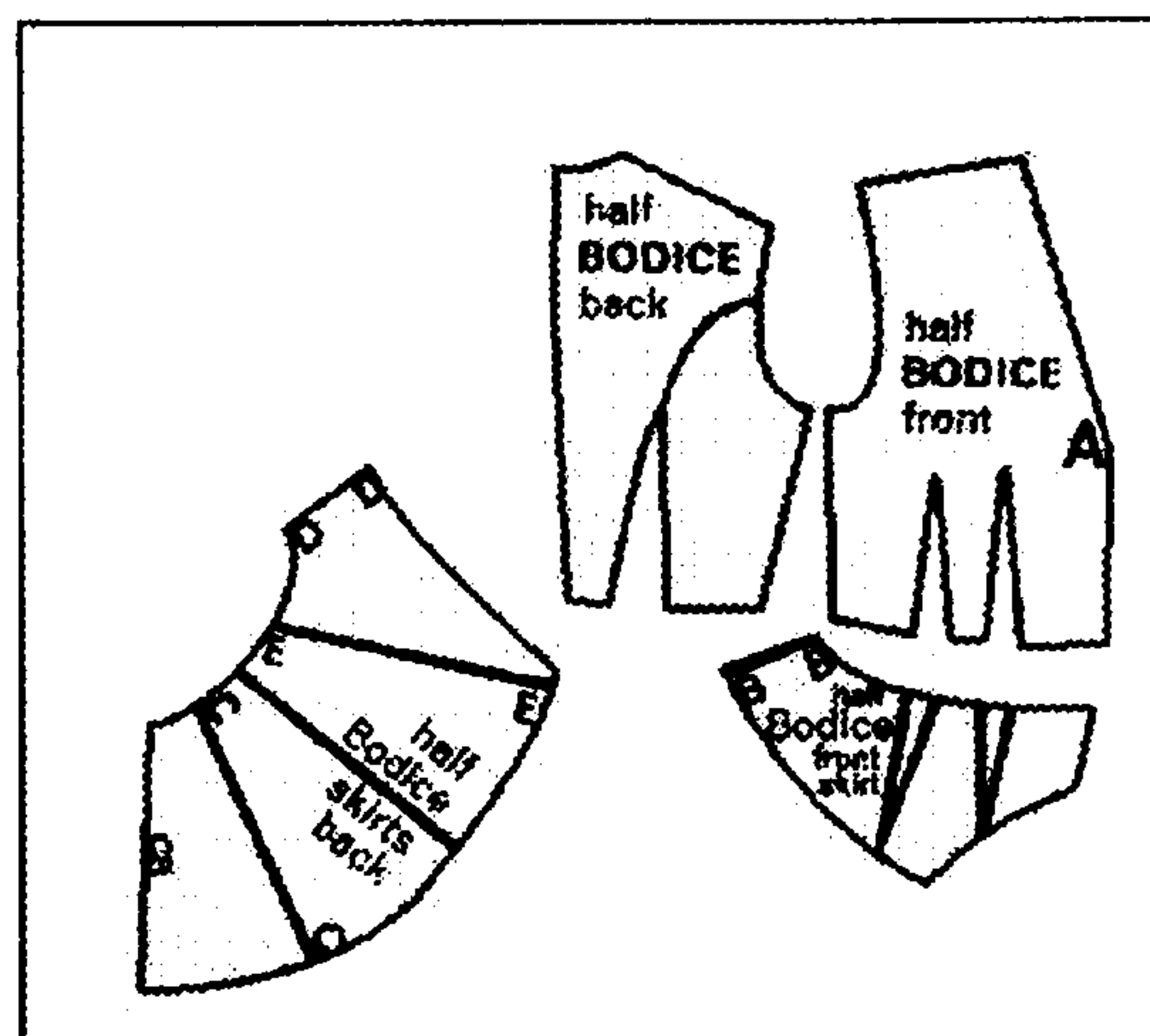
로이 시작되어 입체화를 위한 구성 방법이 강조되었다.

1890년경부터 전개된 S자 스타일에서는 가슴부위가 강조되었다. 과거에 스커트를 크게 부풀렸던 시대에는 상체가 조인 형태를 유지하였으나 이 시기에는 엉덩이가 부풀러지면서 스커트가 종 모양으로 아랫부분이 퍼진 형태였으며 가슴부분이 돌출되어 입체감을 강조하였다.

바디스패턴의 경우 허리선을 꼭맞게 절개되거나 다트 프린세스라인으로 입체화시켜 로우웨이스트에서 절개되었으며 옆선을 인체에 일착된 사선으로 절개되었다.

입체화 방법으로 다트와 프린세스라인이 사용되었는데 프린세스라인이 경우 처음으로 어깨에서 시작되는 것이 등장하였으며 앞 뒤 바디스에 이중 프린세스라인으로 새로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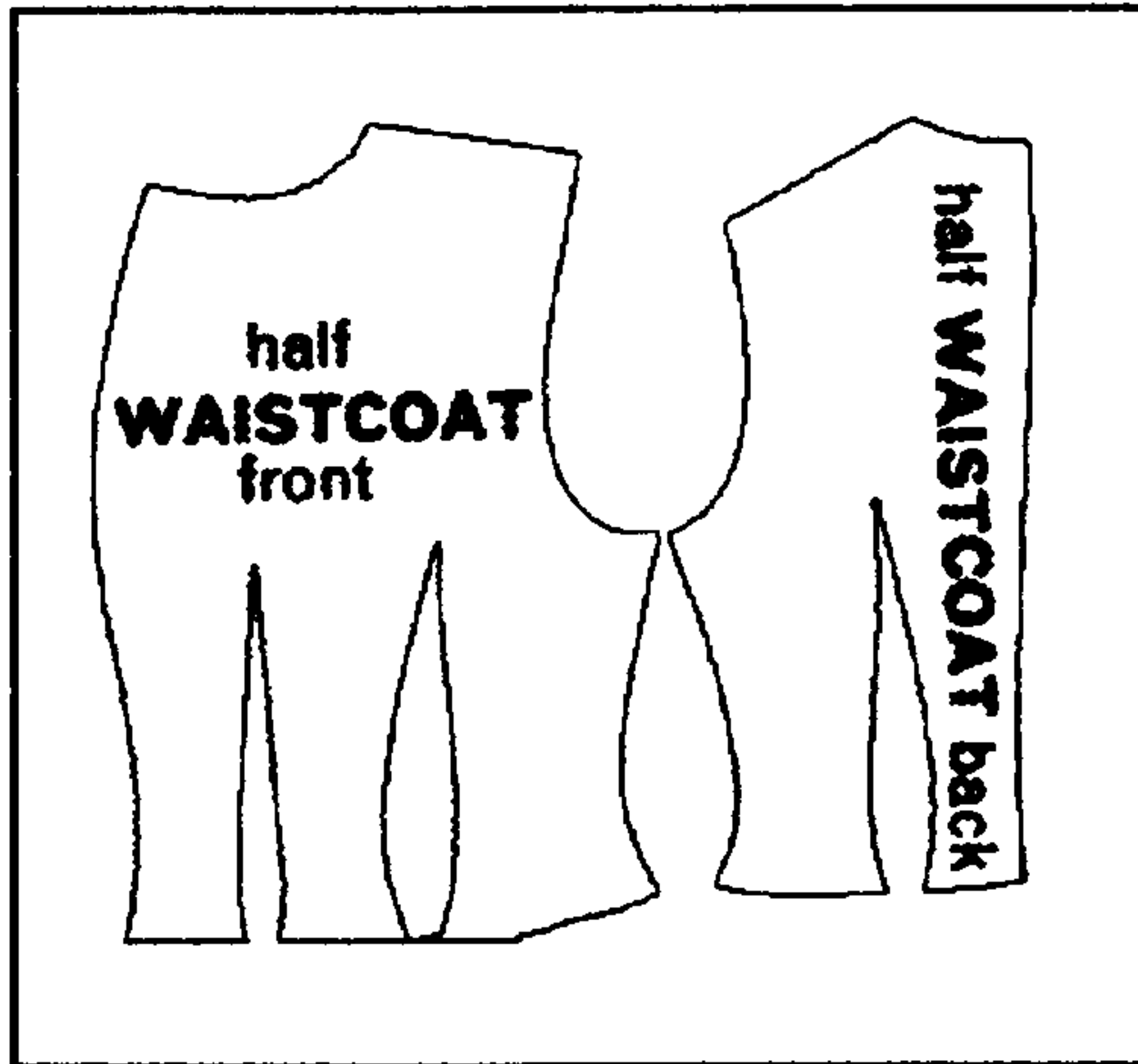
버슬스타일과 S자 스타일의 이중 다트, 다트와 프린세스라인이 동시적용 이중프린세스 등 많은 구성선이 적용되어 입체화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8> Bustle의 Bodice, 18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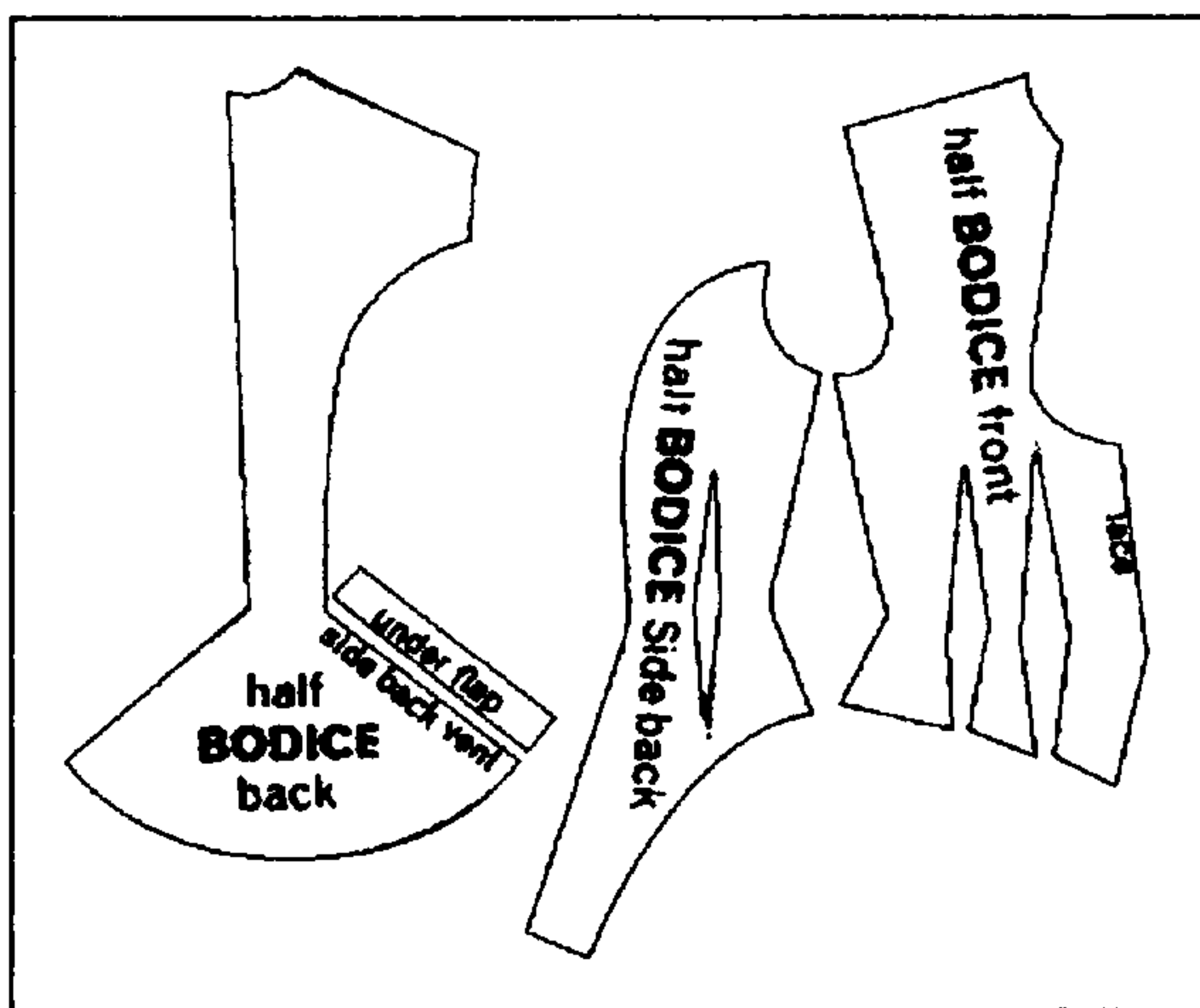
<그림 49> Bustle, 188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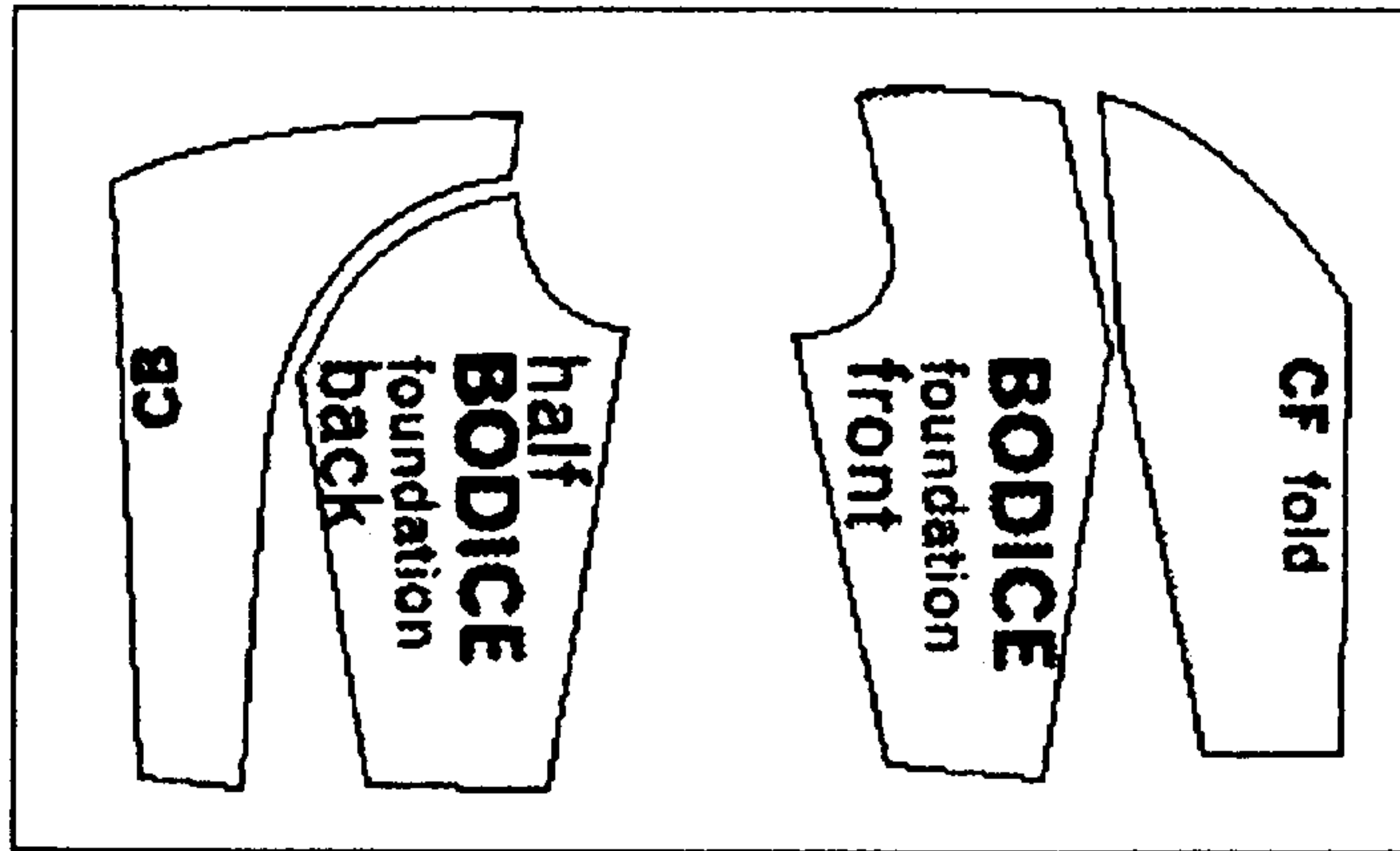
<그림 50> Bustle의 Bodice Pattern, 188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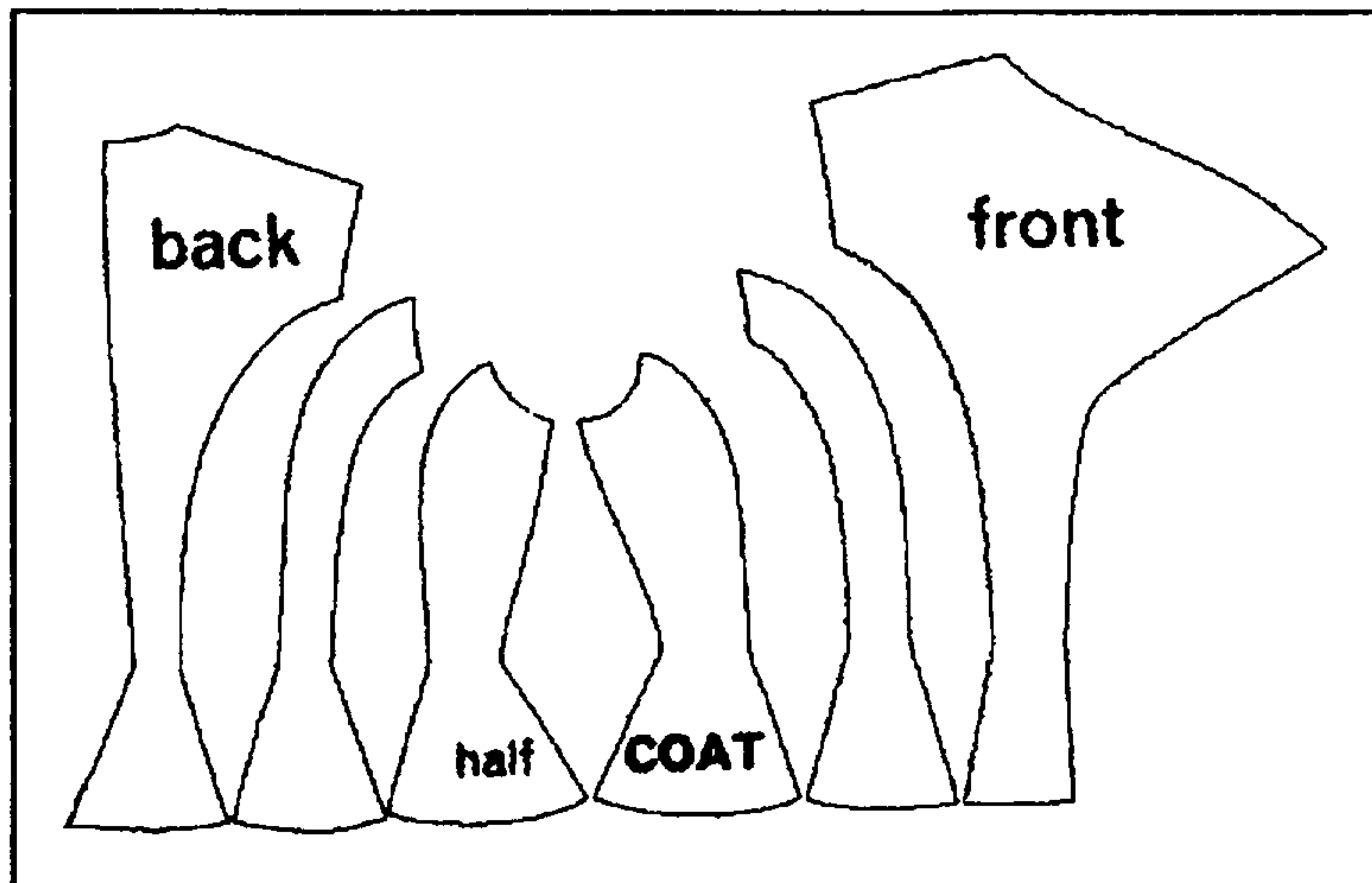
<그림 51> Coat, 1892년



<그림 52> Coat의 Bodice Pattern, 1892년



<그림 53> Coat의 Bodice Patten, 1896년



<그림 54> Foundation의 Bodice Pattern, 1900년

[표 9] 버슬스타일과 S자스타일시대 바디스 패턴의 특징*

시대 (세기)	연대	고찰 의상	실루엣	허리선	옆선	다트	중심선	입체화 방법
근대 버슬 스타일 (1870~ 1890)	1870년	Dress	과장	절개	밀착 사선	앞허리다트2개 뒤프린세스라인	앞뒤절개	다트, 프린세스라인
	1876년					앞프린세스라인 뒤프린세스라인2개		프린세스라인
	1880년					앞허리다트2개 뒤프린세스라인		다트, 프린세스라인
	1886년			-		앞허리다트2개 뒤허리다트, 프린세스라인		
S자 스타일 (1870~ 1909)	1892년	Coat	과장		밀착 사선	앞허리다트 뒤프린세스라인	앞뒤절개	다트, 프린세스라인
	1896년							
	1900년	Dress		절개			앞 뒤 프린세스라인2개	앞골선 뒤절개

* 참고문헌 : Hill

IV. 결 론

서양 복식은 중세로부터 입체화되기 시작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으며, 동양복식의 평면적인 형태와 대조를 이룬다.

현대 사회가 기능성과 간편성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 서양 복식은 세계인의 복식으로 정착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과거의 복식 형태를 기초로 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 부위의 특성상 의복의 입체화에 많은 기술을 요하는 바디스를 대상으로 하여 중세 이후 19세기까지 패턴의 변화를 시대별로 분석하고, 입체화 방법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바디스 패턴의 분석자료로는 서양복식사 관련서적에 제시된 여성복 패턴을 참고로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디스를 입체화하기 위하여 사용된 구성방법은 옆선과 중심선의 절개와 파임, 끈으로 엮어서 조이기, 프린세스선, 고어, 허리선 절개, 닥트, 요크 등이었다.

둘째, 바디스 패턴은 입체화 초기에는 박스 스타일에 가까웠으며 구성방법이 단순하였으나, 점차 인체에 밀착된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구성방법 또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즉, 중세에는 평면적인 형태에서 옆선과 중심선의 파임의 변화와 끈으로 조이는 방식이 주로 나타났으며, 중세 말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는 닥트, 프린세스라인, 고어 등이 등장하였다. 또한 근세에는 허리선 절개 방식이 도입

되었다.

근대에는 프린세스선, 허리선 절개와 함께 다트의 활용이 활발하였으며 요크가 사용되었다.

셋째, 후기로 갈수록 입체화를 위한 구성선이 많이 적용되어 많은 조각들을 이어서 입체화하였다. 즉, 중세 초기에는 다트 선이 전혀 없다가 근대로 갈수록 앞·뒤 바디스에 각각 두개씩의 프린세스선을 사용하거나, 프린세스선과 다트 선을 함께 사용하거나 프린세스선, 다트선, 허리선 절개 또는 요크를 함께 사용하였으며, 19세기 후반의 버슬스타일과 S자 스타일시대에 가장 많은 다트, 솔기선 등이 함께 적용되었다.

이상과 같이 중세로부터 19세기까지 다양한 구성방법을 통해 바디스가 입체화된 것을 파악하였다.

현대복식을 과거의 복식과 비교해 보면 현대 복식이 과거에 사용되었던 입체화 방법 중 일부 구성 방법만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바디스 패턴의 역사적 고찰 결과가 미래의 여성복 디자인 개발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김성숙, “구미여성복의 기능적 변화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2. 김옥진, “비잔틴 시대의 복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3권1호, 1979.
3. 김혜인, “복식의 미적 특성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4. 「대 세계백과사전」, 태극 출판사, 서울 1972.
5. 박길순, 「패션의 세계」,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0.
6. 박명희, “중세 서양복식에 나타난 입체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78.
7. 박선애, “Sleeves의 복식사적 고찰 및 구성방법”, 숙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8. 송명숙, “서구 복식이 평면 의에서 체형 의로 변한 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9. 신상옥, 「서양 복식사」, 수학사, 1998.
10. 송설옥, “복식에 나타난 Collar의 구성적 특성 -근세 · 근대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11. 「신패션용어사전」, 주간디자인신문(주). 2000.
12. 손영순, “Renaissance 복식 구성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13. 이정옥 외2인, 개정판 「서양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1999.

14. 이종남 외4인, 「복식의 역사-고대이집트에서20세기-」, 서울 까치2.
15. 이혜영 외 2인, 「21세기 패션 정보」, 일진사, 2000.
16. 양병우·공저, 「세계문화사」, 서울 을 문화사, 1970.
17. 유송옥, 「복식의장학」, 수학사, 1982.
18. 유희경·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98.
19.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2000.
20.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2.
21. 차하순, 「서양사 총론」, 서울 탐구당, 1983.
22. 최해주, “고대 이집트복식에 표현된 미의식의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20권1호, 1982.
23. 허갑순, 「복식문화와 복장사」, 서울 이즘, 1998.
24.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 From the ancient Egyptian to the twentieth」, New York : Happer & Row, 1965.
25. Carl Köhler, 「A History of Costume」, Dover Publications Inc, New York, 1963.
26. Francois Boucher, 「20,000 Years of Fahion」, Harry N Abrams, Inc, Publishing, New York, 1987.
27. J. Anderson Black, Madge Garland & Frances Kennett, 「A History of Fashion」, by orbis Publishing, 1980.
28. Janet Arnold, 「Patterns of Fashion I : Engilsh Women's dresses & their Construction C. 1660-1860」,
- 29 Janet Arnold, 「Patterns of Fashion II: Engilsh Women's dresses & their Construction C. 1860-1940」,
30. Janet Arnold, 「Patterns of Fashion : The Cut and Comstruction of

Clothes For Men and Women C. 1560-1620」 ,

31. Margot Hamilton Hill perter A. Bucknell, 「The Evolution of Fashion :
Pattern Cut From 1066-1930」 , B. T. Batsford Ltd. , London Van
Nostrand Beinhold Company, 1967.
32. Robert Harrold and Phyllida Legg, 「Folk Costumes-of the World」 ,
British Library Cataloguing-in-Publication Data, 1999.

ABSTRACT

A Historical Study on the Three-Dimensional Construction Methods of Bodice for Western Women's Clothes

Kim, Joon Suk

Major in Fashion Design

Dept. of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

Hansung University

Western clothes began to be body-fitted from the middle ages and have changed into various forms.

As the functionalism and simplicity were pursued through the modern society western clothes became to be the clothes for all over the world

This thesis analyzed the change of the bodice patterns for western women's clothes from the middle age to the 19th century and studied the characteristics of three-dimensional construction methods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Bodice patterns for western women's clothes from the historic book of costumes were selected to analyze the three-dimensional construction methods.

The major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ree-dimensional construction methods used to fit the body were cutlines of side seam line center line and lacing princess lines cutlines of waistline darts and yoke

2. Bodice patterns were similar to box shape and construction methods were simple in the early stage of the body fitting construction methods.

Cut-out lines of side seam line and center line lacing were used in the middle ages darts and princess line were shown in the late middle ages.

Cutlines of waistlines were appeared in the early modern ages. Darts were used much with princess lines and cutlines of waistline in the middle ages.

3. gradually more construction lines for body fitting were adapted and bodice patterns were divided into many panels to fit the form of the body.

There were no dart lines in the middle ages and as times go by to the modern ages two princess lines were adapted together to the front or back bodice and princess line and dart line were adapted together princess line dart line cutline of waist line yoke were used together.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most darts seams were used in the

periods of bustle style and silhouette style.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most dart seams were used in the periods of bustle style and S silhouette style.

Versatile construction methods were used from the middle ages to the modern ages.

Comparing the bodice patterns of present day to those of the past only some of the patterns used in the past are adapted nowadays.

So the results of historical analysis of bodice patterns are expected to be references for the developments of fashion design.